

제2131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글로벌 투자금융 영업 확장 속도내는 손태승 2



신준식 이사장 "한방의료 실손보험시대 온다" 23

대형마트, 장난 아닌 '장난감 전쟁'

어린이날 맞아 '완구 최저가' 롯데, 매일 온·오프 가격 비교 이마트는 신세계 상품권 보상

대형마트 업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완구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다. 연초부터 마트 3사가 벌이고 있는 '가격전쟁'이 이번엔 완구로 옮겨간 셈이다.

롯데마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8일까지 '동 큰 완구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 행사로 어린이날 완구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위한 '극한도전'을 선보인다.

'극한도전'이란 행사 기간 어린이날 인기 완구 상품 10가지를 매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경쟁사와 단위당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선보이

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영실업 시크릿 화장가방(4만1800원) △놀러와 미미 이층집(4만5700원) △미미월드 뽀로로 소방서(4만 원) △코리아보드 도전 골든벨(2만4900원) △헬로카봇 브레이로드(3만3900원·사진) 등을 대표 상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상품 가격은 매일 오전 9시 기준 오프라인 가격은 이마트, 온라인 가격은 쿠팡과 비교해 하루에 한 번 최저가로 가격을 변경한다. 또한, 7일까지 완구 전 품목을 7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1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어린이날 완구 구매 수요를 잡기 위해 온·



오프라인 최저가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향후에도 상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6일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어린이날 선물 대전'을 연다. 인기 완구 30개 품목을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최저가 프로모션으로 기획했다.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면 신세계상품권5000원권으로 1인 최대 1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대상 품목은 '헬로카봇 브레이로드+영토킹(동시 구매 시 3만4900원)', '빠사메카드 에반vs크리프론 최강배틀 세트(3만5000원)', '뽀로로 소방서(4만1800원)', '다이슨 코드프리 청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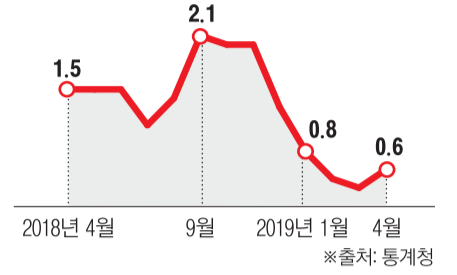
(3만5000원)' 등 30개 품목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최대 73%까지 파격할인에 나섰다.

홈플러스도 전국 점포에서 15일까지 완구 등 어린이 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헬로카봇 UFO 드롭콩세트(5만9900원)', '빠사메카드(1만2000원~6만8000원)' '카봇콩 신상품 3종(1만9800원)'을 싸게 내놓는다. '다이너코어 에블루션 킹다이노' 및 '베이블레이드' 40여 종도 각각 5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기획상품도 저렴하게 마련했다. '손오공 럭키박스(1만9900원)'를 2000개 한정으로 선보이고,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스포츠 용품 및 BT21 캐릭터 상품도 대형마트 단독으로 저렴하게 내놨다.

남주현 기자 jooh@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채소·석유가격 하락 여파 4개월째 물가 0%대 상승 4월 0.6% 올라...1965년後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0.6% 오르며 4개월 연속 0%대 상승을 이어갔다. 1~4월 누계 상승률은 0.5%로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6%, 전월보다는 0.4% 상승했다.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도 0.9% 오르며 2개월째 0%대 상승률을 보였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와 생활물가지수도 각각 0.7%, 0.4% 오르는데 그쳤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하락했다.

지난달 저물가에는 공공서비스 상승률 둔화와 유류세 인하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지출 목적별로 음식·숙박(1.9%), 식료품·비주류음료(1.4%) 등은 올랐으나 의료·신발(-0.2%), 오락·문화(-0.4%), 통신(-2.6%), 교통(-1.9%) 등은 내렸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중 채소류가 11.9%,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5.5% 하락했다. 집세는 전년 동월과 같았으며, 공공서비스는 0.3% 내렸다. 채소류와 석유류는 종합지수 상승률을 각각 0.19%포인트(P), 0.24%P 끌어내렸다.

지금과 같은 저물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변수다. 이달부터 유류세도 단계적으로 환원된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가 축소되면 (종합지수는) 0.1~0.15% P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中 금융시장 활짝 열린다

외자銀 자본제한 철폐 등 추가 개방

중국의 44조 달러(약 5경1260조 원)에 달하는 금융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독회)가 1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현지 은행 투자 제한을 없애고 총자산 조건을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은보감독회는 국내외 자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중국계 은행과 외자은행이 중국 상업은행에 투자할 경우 자본 제한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외국 은행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야 했다. 중국 현지에 은행(지점 총괄 은행)을 설립할 경우에도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이들 조건이 모두 사라진다.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외국계 보험회사 투자를 허용한다. 외국 보험중개업체가 중국에서 영업할 때 필요했던 30년 이상의 관련 경영 경력과 총자산 2억 달러 이상 조건이 폐지된다. 소비자 금융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 국내외 기업 모두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은보감독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은행들은 별도 심사 없이 중국 본토에서 바로 위안화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몇 달 전 외국 증권사의 현지 합작사 투자 시다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했던 조치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문턱을 낮춘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금융시장을 해외 자본에 더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상하이 소재 캐피털시큐리티즈의 라오천카이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외국 기업에 더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ojung2@



현대건설, 쿠웨이트 36.1km 바닷길 열었다

현대건설이 1일(현지시간)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km(해상 27.5km, 육상 8.6km)를 잇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준공했다.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개통으로 쿠웨이트시 도심에서 수바이 지역까지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20분 남짓으로 단축됐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지역특색 살리니...전통시장 4년 연속 매출 '쑥'

고객 수도 해마다 늘어...특성화시장 올 85곳 신규 지정

전통시장 매출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은 보통 시장에 비해 월등한 성장 폭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고객 수는 2014년 18억 명에서 2015년 19억1000만 명, 2016년 19억7000만 명, 2017년 20억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통시장 매출도 2013년 19조9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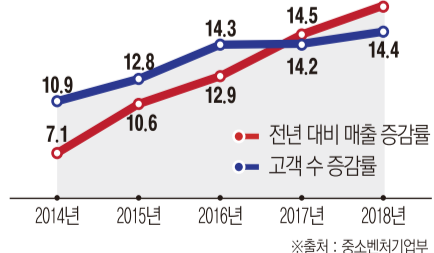
원, 2014년 20조1000억 원, 2015년 21조1000억 원, 2016년 21조8000억 원, 2017년 22조6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인의 자구 노력과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된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특성화 시장은 역사, 문화, 특산품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시장의 개성과 특장점을 최대한 살린 곳이다. 2014년 이후 전국 전

특성화시장 고객수, 매출액 변화 (단위: %)



통시장 1693곳 중 500여 곳이 지원받고 있다. 올해도 특성화 시장으로 85곳이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특성화 시장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은 2014년 7.1%에서 2015년 10.6%, 2016년 12.9%, 2017년 14.5%, 2018년 16.3%

까지 상승했다.

반면 특성화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시장의 매출 성장률은 2017년 0.5%에 그쳤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성화 사업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대기업 등 민관 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정년물 조성 확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지원, 노후 건물의 디자인 재생 등 다양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號 ‘유럽금융벨트’ 완성… 해외 순익 3배 늘린다

‘비이아이익윈’ 강조한 손 회장
獨프랑크푸르트 IB데스크 신설
유럽~영국~폴란드 사무소 연결
글로벌 순익 ‘퀀텀점프’ 시너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 전환 후 글로벌 투자금융(IB) 영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독일 프랑크푸르트 IB데스크 신설로 유럽법인과 영국 런던지점, 폴란드 카토비체 사무소로 이어지는 ‘유럽금융벨트’를 완성했다는 평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IB데스크를 신설하고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해 브렉시트에 대비해 유럽 거점을 독일로 이전

한 뒤, 런던 IB데스크 기능도 일부 옮겨오는 것이다.

손 회장이 취임 후 줄곧 “국내 영업 환경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부문에서 비이아이익윈을 확보하라”고 강조해온 만

큼 IB부문 수익 확대가 핵심 경영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중 IB데스크가 8곳으로 가장 많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싱가포르

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 뭄바이에 IB데스크를 추가했다. 올해에도 두바이와 독일에 IB데스크를 신설해 유럽연합(EU) 지역의 영업 발판을 마련했다.

런던 IB데스크는 올해 1월 카타르 국립은행(Qatar National Bank) 전자자금대출 1800만 유로 달을 성사시키는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유럽 전체 밑을 이전에는 런던에서 부킹했다면 이제는 인수금융, 부동산 등 대체투자, 항공기금융 등 다양한 밑을 지역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 신설한 두바이 IB데스크는 중동뿐만 아니라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로 이어지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또 인도 뭄

바이 IB데스크와 협업해 서남아시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건설사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올해 글로벌 순익 ‘퀀텀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IB부문 기여도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외영업점 외환 대출액 9억5000만 달러 중 42%가량을 차지하는 4억 달러가 IB부문 우량 신디케이드 론(Syndicate Loan)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체 당기순익 중 10%(1969억 원)를 차지하는 해외부문 순이익 비중을 2020년까지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쓰카 대표〉

모빌리티 혁신 이끈 ‘이재웅의 통찰력’

‘타다’ 출시 6개월 만에 회원 50만명 돌파… 운행차 1000대·드라이버 4300명

이재웅 쓰카 대표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VCNC는 타다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회원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운행 차량은 1000대, 1회 이상 운행 드라이버가 43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VCNC는 이재웅 쓰카 대표가 지난해 7월 인수한 스타트업이다. VCNC는 쓰카에 인수된 지 3개월 만인 10월에 타다 서비스를 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타다 측은 “출시 후 6개월간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어낸 만큼 앞으로 ‘타다 프리미엄’ 등 준고급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로 모빌리티 혁신과 사용

자 이동권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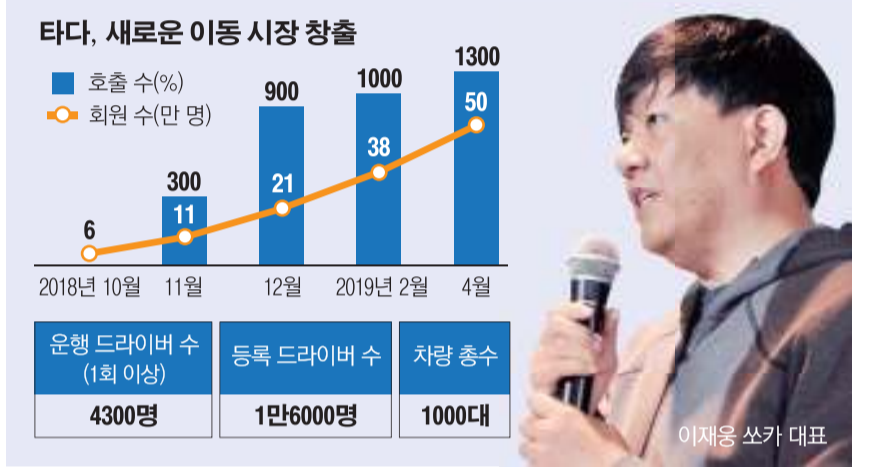
타다는 모빌리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이동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이동을 선택하고 경험해본 사용자들의 눈높이는 상향됐고, 이동 시장은 사용자 편익을 중심에 둔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승차거부 걱정 없는 바로 배차 시스템, 편안하고 쾌적한 탑승 환경,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버 등 타다가 선보인 혁신적인 해법은 이동 시장의 서비스를 바꾸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낸 것이다.

타다 서비스 출시 당시 업계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도 그럴 것이 VCNC는 쓰카

에 인수될 때까지만 해도 커플업 ‘비트윈’을 개발·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이었다. 모빌리티 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내놓은 타다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타다는 출시 직후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쾌적하고 넓은 실내와 친절한 기사, ‘바로 배차’가 가능한 점 등이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재웅 쓰카 대표의 생각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고성장장을 하는 타다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달 30일에는 개인택시기사들이 쓰카 서울사



무소 앞에 모여 ‘타다 서비스 중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가 승합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여객 운송을 자행하고 있다”며 “타다의 서비스를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는 모빌리티의 혁신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택시기사들이 될 것”이

라며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개인택시를 플랫폼에 포함시켜 연착륙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준비하고 있는 준대형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통해 개인택시기사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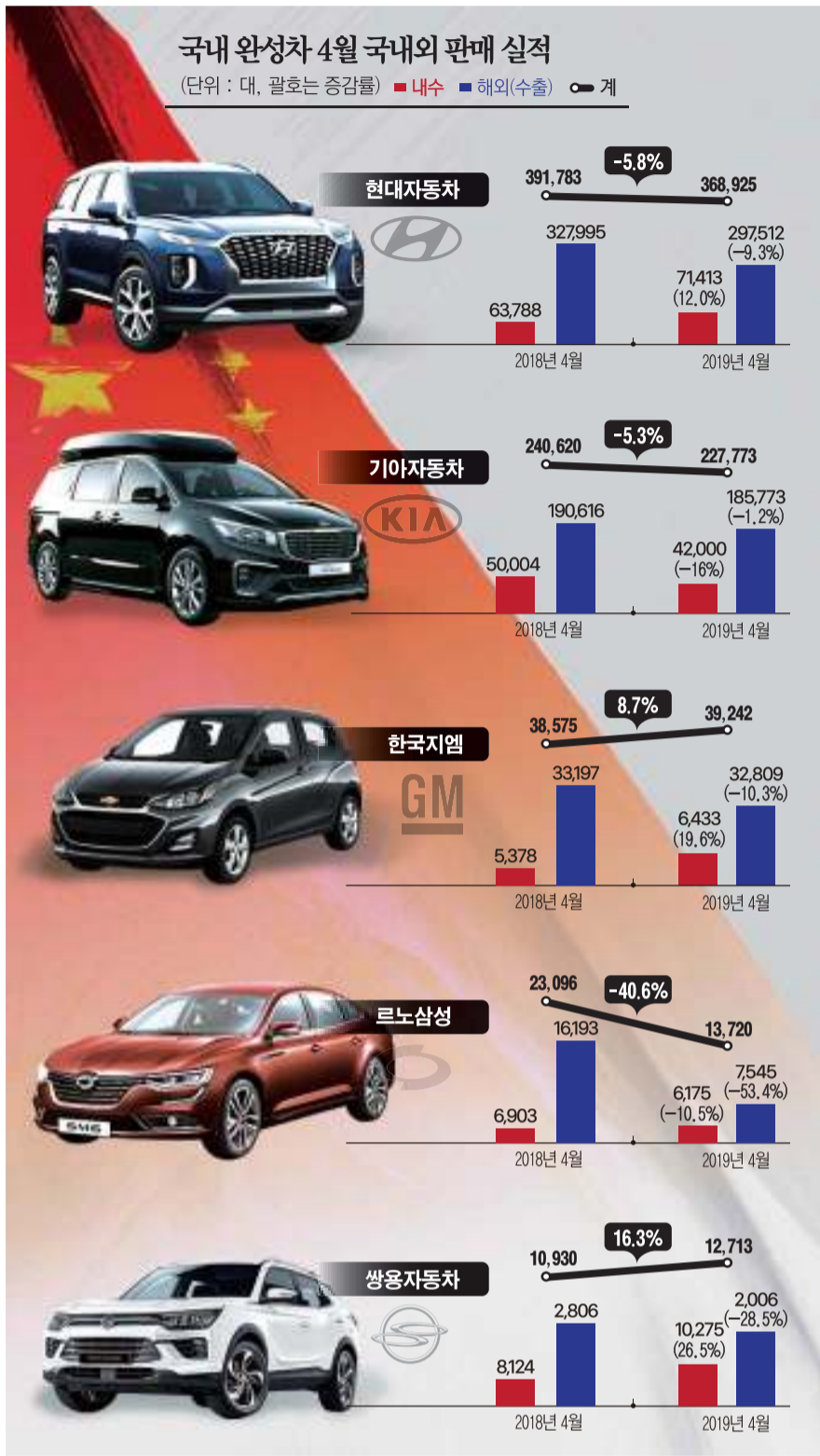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현대차 '중국', 기아차 '내수'에 발목... 5%대 동반하락



현대차, 국내 판매 늘었지만 해외선 부진... 전년대비 5.8% 하락
기아차, 현대차 내수 확대 밀려 16% 급감... 해외서도 2.5% 감소

현대기아자동차의 4월 국내·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하락했다. 해외 부진을 내수판매 확대로 탈피해온 현대차는 중국시장 판매부진 여파가 컸다. 현대차 내수판매 확대에 밀린 기아차 국내 판매는 무려 16%나 급감했다.

현대차는 산토끼를 놓치고 기아차는 집 토끼를 놓친 형국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7만1413대, 해외에서 29만7512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12%나 늘었으나 해외판매가 9.3% 감소했다. 총 판매 역시 지난해 4월보다 5.8% 하락한 36만8925대에 그쳤다.

현대차는 해외시장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국내 판매 확대로 상쇄해 왔다. 해외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도 내수판매는 꾸준히 증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역시 국내 판매가 10% 넘게 증가한 사이, 중국 판매 부진에 발목 잡힌 해

외판매는 무려 9% 이상 줄었다.

기대했던 만큼 내수판매가 늘어나지 못한 것도 전체 판매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쏘나타는 이미 누적 계약대수가 2만 대를 넘어섰지만 출고 물량은 6000여 대에 그치고 있다. 초기 품질 문제 탓에 출고 지연이 있었고 이 여파가 4월 내수판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계약대수가 이달부터 공급되는 만큼 실적 추가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 부진을 내수판매 확대에 극복 중인 현대차 탓에 뚜렷한 신차효과를 보지 못한 기아차의 국내 판매는 주춤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4만2000대, 해외에서 18만5773대를 판매했다. 해외판매가 2.5% 감소한 반면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무려 16.0%나 급감했다. 전체 국내·외 판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든 22만7773대에 머물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4대)

보다 무려 16.0%나 감소한 4만200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는데 주력 SUV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모델 교체주기를 앞두고 있는 K5와 K7의 판매 부진도 내수 판매의 발목을 잡았다.

해외 판매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18만5773대에 머물렀다. 유럽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중국 등 일부 신흥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신차 사이클이 유리하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신모델 출시가 이어지면 예년 수준의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에 신형 쏘나타와 제네시스 신차 2종이 북미 시장에 투입된다. 엔트리급 SUV 신차 베뉴 역시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장문수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분기 실적이 연간 목표치에 도달했으나 연말 중국시장 전기차 출시가 예정돼 손익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쌍용·지엠은 '신차·무이자 효과' '장기파업' 르노, 두 자릿수 추락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GM)은 4월 한 달간 내수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부진한 수출 성적을 만회했다. 반면 7개월간의 파업 후폭풍으로 준림마저 흔들리는 르노삼성자동차는 해외는 물론 내수시장에서도 외면당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총 1만2713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만 1만275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8124대) 대비 26.5% 늘어난 규모다. 이는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코란도 등 신차와 티볼리 등 기존 차량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회사 측은 "성공적인 신차 출시로 두 달 연속 1만 대 판매를 돌파한 내수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출은 부진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반조립제품(CKD) 물량을 제외하고 2006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2806대) 대비 28.5% 감소한 수치다. 다만 지난 제네바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렉스턴 스포츠 칸에 이어 코란도 역시 해외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내수판매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며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달 내수에서만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6433대를 기록했다. 스파크, 말리

부, 트랙스, 볼트 EV 등 웨보레의 주력 제품 라인업이 고루 선전하며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게다가 선수금 없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도 한몫했다.

트랙스는 총 1057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스파크와 말리부는 2838대, 1151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5%, 99.8%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지엠 역시 다소 아쉬운 수출 성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3만2809대를 해외에 판매했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해외는 물론 내수 시장에서도 외면받으며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나 고꾸라졌다. 장기파업 후폭풍으로 생산량 감소는 물론 실적까지 악화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론까지 나온 탓이다.

르노삼성은 내수 시장에서 지난달 전년 동기(6903대) 대비 10.5% 감소한 6175대를 판매했다. SM5(-77.6%), SM5(-24.5%), SM6(-24.3%) 등 SM시리즈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 여파로 생산량은 물론 판매량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산 공장 생산라인은 멈춰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생명

DB캐피탈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에너지저장장치〉

‘新성장동력 ESS’ 길어진 화재 조사에 고사 위기

알 수 없는 화재에 522곳 멈춰 5개월 조사에도 원인 못 찾아 삼성SDI 1분기 실적 ‘반토막’ 관련 증권·중소는 생사기로 정부 “전기요금 특례 등 지원”



1월 울산 가스공장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작년부터 ESS 업계에 매달 1회가량 화재가 발생해, 정부와 업계에서도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스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은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을 시작으로 잇달아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멈춰섰다. 주요 ESS 업체의 1분기 실적은 크게 줄었고 관련 증권·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ESS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의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원 대책을 내놨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가동을 멈춘 ESS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22곳에 이른다. 전체 사업장(1490곳)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산업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5월 다중이용시설이나 별도 건물에 없는 공장용 ESS 등에 가동중단을 요청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충전을 하향 등을 권고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위를 구성해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조사가 다섯 달 넘게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장은 ESS를 설치

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설비 제조업체엔 신규 발주가 끊겼다. 국내 최대 ESS 제조사인 삼성SDI의 올 1분기 실적은 ESS 사업 차질 등으로 전 분기보다 52.2% 줄었다.

조사위 측은 다음 달 초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운영 결함이나 전기 충격, 결로·먼지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발표 후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가동중단ESS의 재가동을 위한 안전조치 권고에 나선다.

정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동중단 사업장의 손실 보전방안부터 내놓기로 했다. 지원 방법으로는 ESS 충전에 드는 전기 요금 할인 기간을 가동중단 기간만큼

늘려주는 특례요금 연장이 유력하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사업장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지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지원 등 ESS 수요·공급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ESS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제도와 조사위 발표 등을 고려해 ESS 설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은 신규로 ESS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설치기준 개정 과정에서 ESS 신규 발주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 행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이주열(오른쪽 첫 번째)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낭비’ 막는다

5년 이상 받은 기관, 지원 필요성 재검토

기재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해야

5년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기관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세부확정지침’을 2일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됐다. 각 부처는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에 대해선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10%포인트(P) 가산된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를 기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밖에 부처의 예산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가 개선됐다. 상황·여건 변화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은 간소화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제출되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이해육 대립산업 회장 고발

호텔업 진출하면서 자회사에 사업기회 제공 ‘사익편취’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사업기회제공)을 몰아준 대립(자산총액 18조7000억 원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이해육 대립산업 회장(총수 2세)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립산업, 오라관광, APD 등 대립 계열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대주주인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대립산업, 오라관광과 이를 지시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상장사 3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총수일가 사익편취)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총수 3세) 씨는 지분 100%를 출자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PD를 설립했다.

대립의 주력회사인 대립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립 호텔 브랜드인 ‘GLAD(2012년 9월~2013년 9월)’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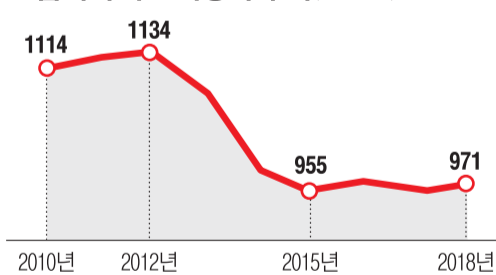
발한 뒤 APD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대립이 소유한 호텔 3개의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대립산업의 자회사)은 2015년 12월 APD와 GLAD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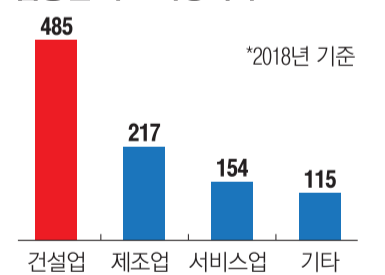
문제는 오라관광이 계약 체결 후 APD로부터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APD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APD는 오라관광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 사용료를 수취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2세 및 3세에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추이(단위: 명)



업종별 사고 사망자 수(단위: 명)



*2018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작년 산재로 971명 사망... 건설업 절반

고용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사망자 2142명...추락사 376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97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는 2142명으로 전년 1957명에 비해 9.5%(185명) 증가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962명보다 7명 증가했다.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추락 사망자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 8만9848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고용부는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2018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7년 일정보건권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고, 지난해 사업주확인제도 폐지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개인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피해 보상 쉬워진다

보험금 청구 접수채널 다양화 공제조합별 안내체계도 표준화

앞으로 개인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

화 등을 골자로 한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자동차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90만 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나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한다. 또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 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을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사회 원로들과 오찬간담회
이홍구 “대화 통해 해결해야”
윤여준 “민주당 아직도 野 같아”
송호근 “정책기조 전환 필요”
文 “국정농단 청산 뒤 협치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사

사회 원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였다.

이홍구 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원전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해냈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인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라고 충고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

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원로들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 필요 △경제 불안 최우선 해소 △탈

원전 정책의 진행 과정 문제점 △사학법 개정 △긴 안목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제안과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엮

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로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칠레의 초당적인 협력을 예로 들면서 “좀 더 협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를 그만하자는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등 돌린 20대 잡기 나선 당정청

靑에 청년정책관실 신설
총리실엔 정책조정위 설치
당, 청년미래 연석회의 구성

당정청은 2일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등을 돌린 20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기성 세대가 아닌 청년의 참여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청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했다. 우선 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실 내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청년정책관실은 대통령과의 소통과 총리실 및 당과의 소통 역할을 맡는다.

당에서는 청년미래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에 의해 구성돼 있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발의된 청년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을 총리가 맡기로 했다. 청년정책 조정위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단을 국무조정실 내 만들기로 했다. 조현정 기자 jhj@

경부선 투쟁·삭발식... 한국당 ‘여론몰이’

황교안 “지금이라도 악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홍영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급... 국회 복귀하라”

선저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패스트트랙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여론전에 불을 붙여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경부선 라인을 따라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3일에는 광주역, 전주역, 용산역으로 올라오는 호남선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총선용 선심 살포 추경이 아닌 제대로 된 재안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

각성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대출 의원에 이어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심사와 노동관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유종현 기자 lamuziq@

70th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마보, 스톡봇) 이용 무료
 - 로보서비스 신규 고객만 가능
 2019.01.01~2019.12.31
 교보증권 기준 및 신규고객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신용공여대출 연 4.9%, 담보대출대출 연 5.5%
 2019.01.01~2019.12.31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먼 고객에 비하면 개개별 조건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이벤트
 예탁담보대출 연 4.1% 적용
 2019.01.01~2019.12.31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대출금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2019.01.01~2019.12.31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이벤트 기간에 비어면 또는 은행연계 채입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증권계좌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험금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금 담보대출 미납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면권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에 한하여 교보증권 MTS(대체 시 0.014%)의 주식매매수수료를 적용합니다(신규회원개화 기준 1개월간, 중도해약금 및 신규계좌만 해당)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에 비하여 0.1%로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0CNY로 자체한 사항은 총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에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는 수익담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라든... 파월 "금리 인하 안 한다"

연준, FOMC서 '금리동결' 결정 파월 "정책변화 필요성 못 느껴" 경기부양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정책 현상 유지를 결정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부양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이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표치를 밀도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CNBC방송이 설명했다.

우선 연준은 최근 경제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FOMC 성명

에서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1분기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3.2%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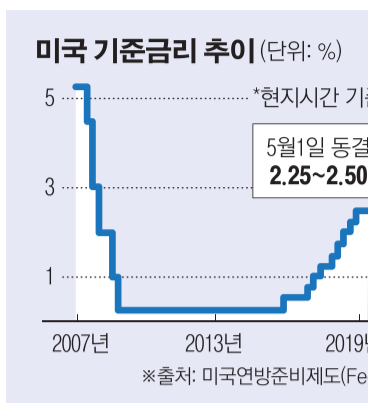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은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감소해 2%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의무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목표 범위를 2.25~2.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글로벌

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상 중단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CNBC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금리 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수준인지 충분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물가 약세는 일시적이며 금리 인상이나 인하 어느 쪽으로도 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나섰다. 이어 "핵심 인플레이션의 감소는 대부분 일시적인 수치가 다시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낮은 인플레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FOMC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선이 오래 지속되면 금리 정책이 변화를 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해왔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 차단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0.61%, S&P 500지수가 0.75% 각각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57% 빠졌다.

김서영 기자 0jung2@



태국 국왕, 26세 연하 근위대장과 결혼
미하 와짜랄롱꼰 태국 국왕이 1일(현지시간) 26세 연하인 자신의 근위대장 수티다 와짜랄롱꼰 나 아 유티야와 결혼한 후 왕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수티다 왕비는 타이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했다. 국왕은 4~6일 69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을 앞두고 이날 네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방콕/AP연합뉴스

'특허전쟁' 종결 합의한 퀄컴 애플로부터 최소 5兆 받는다

퀄컴 주가 올들어 52% 폭등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 퀄컴이 애플과 벌였던 '세기의 특허전쟁'을 끝내면서 돈방석에 앉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2년 넘게 진행됐던 소송전을 끝내면서 합의안의 일환으로 애플로부터 이번 분기에 최소 45억 달러(약 5조2515억 원)에서 47억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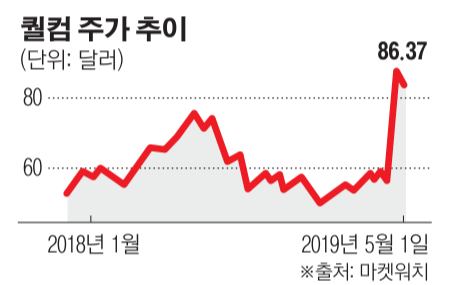
퀄컴은 "이번 합의금은 주로 대만에 소재지를 둔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 하청업체들과의 이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반도체 제조와 특허 라이선스를 결합한 자사 사업모델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합의금은 애플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앞서 퀄컴과 애플은 지난달 분쟁을 종결하면서 6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퀄컴이 애플에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용 모뎀 칩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퀄컴은 지난 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다만 애플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이 시장 예상인 약 53억 달러보다는 적고 실적 전망도 부진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4% 가까이 급락했다. 여전히 애플과의 분쟁을 끝내면서 퀄컴 주가는 올해 약 52% 폭등한 상태다.

퀄컴은 3월 마감한 2019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한 조정 매출은 48억8000만 달러로, 팩트셋 집계 애널리스트 예상치 48억 달러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6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77센트로, 시장 전망 71센트를 뛰어넘었다.

애플로부터 막대한 합의금을 받으면서 퀄컴은 현 3분기(4~6월) 매출이 92억~10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전 같은 기간 매출은 56억 달러였다.

다만 퀄컴은 이번 3분기에 1억5000만~1억7000만 개의 칩을 출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中, 내주 무역분쟁 '종전도장' 찍나

"10일 타결 가능성"...美, 2000억 달러 對중국 관세 즉각 철폐할 듯

1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드디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관세 즉시 철폐'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한 발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C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10일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다음 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미중 양국은 8일부터 이틀간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무스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협상 타결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측은 구조적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중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현안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기존 관세 즉시 폐지 여부 등이 계속해서 타결의 발목을 잡아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몇몇 조항을 중국 측에 양보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유지하는 대신 2000억 달러 어치에 불인 10%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해지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폴리티코는 5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는 2020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소식통을 인용해 별개 관세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또는 새로운 대통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전면 철폐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비율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도 대미 수입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3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랜 관행을 개혁하는 문제 역시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돼지열병 후폭풍 "내년까지 고깃값 오를 듯"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중국 양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 그 추세가 2020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C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29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마스 팔머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국 확산으로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기간이 길어질 수 있

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법이 아직 없고,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대체할 품목이 나오기까지 최소 2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 증가는 적어도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관련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로우스트림의 데이비드 말로니 부사장은 "베이컨을 만드는 돼지 부위 가격이 올해 약 40% 인상될 수 있다"며 "2020년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베이컨 가격이 배로 뛰면 이 재료가 들어간 샌드위치 가격은 30~40%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3.4% 상승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아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던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육아의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도록
지역의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구하기가 짐이 아닌 힘이 되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통해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1호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어린이집 100호 건립으로 각 지역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맥도날드서 환전...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대출

금융위, 혁신금융 9건 지정

블록체인 활용 주주명부 정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등
최장 4년간 영업규제 대상 제외

앞으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이나 현금출출금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필요 없이 앱으로 최저 대출금리 확인은 물론 신청도 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위에서 우선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10월 '드라이브 스루(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할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핀셋이 다음달 내놓을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금융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확정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9월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NHN페이

2차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사 | 내용 |
|---------|---|
| 핀다 |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 확인 후 대출 신청 |
| 비바리퍼블리카 |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 금리 확인 후 대출 신청 |
| NHN페이코 | 대출 금리 및 한도 조회후 조건 협상 후 대출 신청 |
| 핀셋 | 개인별 신용·부채 통합 분석 후 대출가능 상품 안내 |
| 핀테크 | 차량번호 입력 시 '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안내 |
| 코스콤 |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
|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 |
| 우리은행 |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 |
| 더존비즈온 | 중소기업에서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 활용해 신용정보 제공 |

*출처: 금융위원회

코는 중·저신용자에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는 차 번호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서 사고 내역과 운전자 정보, 운전 경력을 자동으로 조회해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스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 정리해주고(11월)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고(6~9월 중) △더존비즈온은 비외감 기업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해주는 서비스(11월)를 선보인다.

이 9건의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장 4년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

고 마음껏 영업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은 "올 초 사전신청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나머지 86건에 대해서는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6월 말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헬스케어 보험' 의료법에 발목 잡혔지만 복지부, 1년째 '꿀 먹은 병어리'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헬스케어)가 의료행위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1년째 답보 상태다. 복지부는 상반기 안에는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이마저도 미뤄질까 속단 태우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산하에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신설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헬스케어 보험 판매의 합법성을 따져본다는 취지에서다.

핵심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여부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 등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 3월 말로 미루더니 또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는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은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상품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이 활용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사실상 '걸음 수'가 전부다.

금융위는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9월 목표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로 제한됐던 3만 원의 상한선을 풀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돼도 건강 관련 서비스는 '모든 의료행위 내에서'라는 전제가 있다"며 "복지부의 법령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2금융권도 '카드·계좌이동' 하반기 도입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한 뒤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시중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의 강화와 2금융권 업무권역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 체감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

언에서 "금융의 최근 미션은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좌이동 서비스와 숨은 예금 찾기,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주로 은행권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돼 2금융권 사용자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카드 자동납부 이동 편의를 위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먼저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금융권 내 계좌이동은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면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금융권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2금융권 자동이체는 총 3283만 개 계좌에 1억 9000만 건에 달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페이인포 플랫폼을 개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캐나다 말라 연구소>

‘딥러닝 성지’ 입주한 삼성, 시스템 반도체 빅피처 그린다

반도체 비전 2030 가속 몬트리올 AI랩 확장 이전 AI 전문가 양성 거점 활용 차세대 반도체 역량 강화

삼성전자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할 인공지능(AI)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기술원 몬트리올 AI 랩(이하 몬트리올 AI 랩)’을 확장 이전한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말라 연구소 건물로 몬트리올 AI 랩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말라 연구소 건물에 입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몬트리올 AI 랩에서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과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등 혁신기술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을 몬트리올 현지에서 지속 파견하며 몬트리올 AI 랩을 선형 AI 연구전문가 양성 거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황성우 부원장은 “종합기술원은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되는 AI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몬트리올 AI 랩을 통해 AI이론,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 등 향후 10년을 책임질 근원적 혁신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라 연구소는 딥러닝분야의 세계 3대 석학 중 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교수를 주축으로 몬트리올대학교, 맥길대학교 연구진, 글로벌 기업의 AI 개발자가 협력하는 세계적 딥러닝 전문 연구기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확장이전과 함께 말라 연구소 소속 사이몬 라코스테 줄리앙(Simon Lacoste-Julien, 몬트리올대) 교수를 영입해 몬트리올 AI 랩장에 선임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2014년부터 요

슈아 벤지오 교수와 협력해 AI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음성인식 관련 공동 논문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 외에도 안 르쿤 교수(Yann LeCun, 뉴욕대), 리처드 제멜 교수(Richard Zemel, 토론토대) 등 세계적 석학과도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AI를 미래 먹거리로 접목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AI 석학인 래리 핵 박사와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AI 기반 감정인식 연구로 유명한 마야 팬틱 교수, AI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리 박사,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세바스찬 승 박사 등 해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위구연 교수를 펠로우(Fellow)로 영입했다. 펠로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회사의 연구 분야 최고직이다. 위구연 펠로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몬트리올 AI 랩 확장 이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상 삼성전자 상무,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사이먼 라코스테 줄리앙 Lab장, 마이클 조단 미국 버클리대 교수, 발레리 피사노 기브레옹 몬트리올대 학장, 심은수 삼성전자 전무, 한재준 삼성전자 마스터.

는 삼성리서치에서 인공지능경량(Neural Processing Unit) 기반 차세대 프로세서 관련 연구를 맡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채용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 회로 설계 방식에 따라 제품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설계 아이디어와 고급 인력이 핵심이다.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위해서는 AI분야의 연구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전자 AS센터 3900명 첫 정규직 출근 5월 1일자로 LG전자 정직원이 된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 3900명이 2일 첫 출근을 했다. LG전자는 이날 출근한 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전국 130여 개 서비스지점에서 ‘LG전자 서비스 직고용 한가족 행사’를 열었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LG 배지와 꽃바구니 등을 전달했다. LG전자는 정년을 넘기거나 입사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직접 채용했다. 전체 서비스 엔지니어 가운데 98%가 LG전자에 입사했다. 사진제공 LG전자

유럽 5G 이동통신 시장 中 스마트폰 업체 선점 오포·화웨이·샤오미 출시 붐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자들보다 먼저 유럽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했다.

2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통신사 선라이즈는 1일(현지시간) 오포 ‘리노’를 시작으로 2일부터 화웨이 ‘메이트20 X 5G’, 샤오미 ‘미믹스3 5G’를 판매한다.

오포 리노 5G는 8GB(기가바이트) 랩에 256GB 내장 메모리, 4000mAh 배터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화웨이 메이트20 X 5G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메이트20의 5G 버전으로, 4200mAh 배터리와 40W(와트) 고속충전을 제공한다. 샤오미 미믹스3 5G 역시 작년 10월 선보인 미믹스3에 스냅드래곤 855, 쿼드 X50 5G 모뎀을 도입한 제품이다.

우리나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중 국내, 유럽에서 5G 스마트폰 LG V50 썬큐를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름 유럽 전역의 5G 사업자 파트너를 통해 갤럭시S10 5G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S엠트론 ‘자율주행 트랙터’ 박차

차 부품사업 매각 1년 트랙터 생산 연 2만대 돌파 첨단제품 개발 잇달아 성공

LS엠트론이 차 부품 사업을 매각하고 트랙터 사업에 집중한 지 1년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연간 트랙터 생산량 2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공개했다.

2일 LS엠트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자동차 부품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분할 법인 지분 80.1%를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 쿠퍼스탠더드에 매각했다.

LS엠트론은 이전에도 일부 부품 사업을 매각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 크래비스로버츠(KKR)에 LS오토모티브 지분과 동박·박막 사업을 매각했다.

부품 사업 매각은 그룹 핵심사업인 트랙터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조처였다. 글로벌 트랙터 시장은 약 70조 원 규모로, 연평균 6.9% 성장하는 잠재

성이 높은 곳이다. 사업 정리를 단행한 이후 LS엠트론은 트랙터 사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무인 경작이 가능한 5G(5세대) 이동통신 원격 제어 트랙터를 공개했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 트랙터 기업 최초로 연간 생산량 2만 대를 돌파했다. 2010년 연간 생산량 1만 대 돌파 후 8년 만에 이런 성과다.

올해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다.

LS엠트론이 공개한 트랙터는 자율주행 1단계로 별도의 핸들 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LS엠트론은 안주하지 않고 2021년까지 탑승자 감시하에 트랙터가 무인 작업을 시행하게 되며, 장애물 감지 시 정지하는 수준까지의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

15년 이상 일반직 대상 이달 중순까지 신청받아 2년치 연봉·자녀 학자금 지급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앞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력 구조조정 작업이 이어지며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이하 일반직)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리는 다음 달 30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정규직 직원은 총 8644명이었다. 이 중 일반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비사와 조종사가 각각 1500여 명, 승무원이 3800여 명 규모로 알

려졌다. 정비사·조종사·승무원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1800여 명의 아시아나항공 일반직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남직원과 여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각각 13.8년과 11.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부 남직원이 희망퇴직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지원자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예상, 목표 규모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급+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韓,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소득 수준 대비 OECD 1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동 7위를 기록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 3000원이다. 이번 조사는 OECD 국가들의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우조선 드릴십 리스크 해소 4년 만에 4100억 ‘재고’ 매각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와의 계약이 해지돼 보유 중이던 드릴십 1척을 매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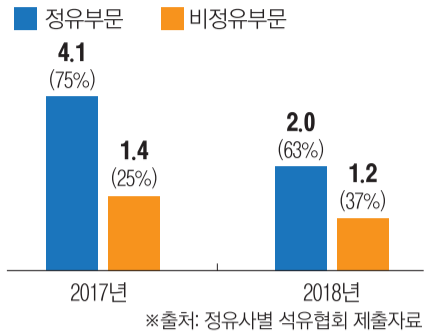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던 드릴십 매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4100억 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손익 개선 효과와 유동성 확보로 이어진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드릴십 1척을 수주했다. 그러나 드릴십 건조 중에 선주 측의 건조대금 지불능력 상실로 2015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드릴십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노던드릴링사와 최종 매각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소나플사 드릴십 2척의 인도 문제 해결과 이번 계약 해지된 드릴십 1척까지 매각이 완료돼 드릴십 관련 리스크는 모두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정유 비중 쪼그라든 정유4사

국제 유가·정제 마진 떨어져
지난해 정유 영업익 12%P ↓
안정적인 비정유 사업 확장

최근 2년간 정유업계 부문별 영업이익
(단위: 조 원, 괄호 안은 비중)



조2795억 원에서 지난해 101조1069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정유 부문 역시 11조1256억 원에서 13조2024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정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8%, 비정유 부문은 12%로 2년 연속 동일했다.

정유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한 데도 영업이익 비중만 급격히 줄어든 데는 지난해 4분기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하며 수익성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재고자산 평가손실까지 더해지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인은 크게 유가하

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하락 등의 영업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국내 정유사의 생산품 중 수출이 16%(2018년 기준)에 달하는 휘발유의 전 세계 공급 과잉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가 고스란히 작년 4분기 실적에 반영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정유사업 역시 제품 스프레드 축소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정유사업에 비해 실적 하락폭이 작아 오히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현재 정유사들은 비정유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운할유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유부문은 지난해 8.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정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에 그쳤다.

석유공사는 "매출액 중 정유부문과 비정유부문 비중이 88대 12임을 감안할 시 석유화학과 운할유 등 비정유부문의 이익률이 정유부문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화학, SK이노에 '2차 공세'

배터리 소송 반박에 재반박
"지재권 보호, 국익 위한 길"
SK 이력서 항목 비밀상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2일 추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LG화학은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지적에 대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사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지

적에 대해 LG화학은 "자동차 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 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율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LG화학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담당 업무와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를 함께 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해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LG화학의 2차 공세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반박) 입장 자료를 낼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UNIQUEMI
제주 방림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Uniquemi Premium Mask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주행거리 36% 늘어난 뉴 아이오닉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탄생했다. 현대자동차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최초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71km로 기존보다 35.5% 늘어났다. 또 100kW 구동 모터 적용으로 기존 모델보다 10% 이상 출력을 높여 전기차로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가격은 △N 트림 4140만 원 △Q 트림 4440만 원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SK이노, 베트남 광구서 원유층 추가 발견

SK이노베이션이 석유개발(E&P)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남동부 해상 15-1/05 광구 탐사를 통해 원유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15-1/05 광구 락따짱(Lac Da Trang·흰색 낙타) 구조에서 3월 초부터 4295m가량의 시추 작업을 시행, 1·2차 목표 구간에서 총 116m에 이르는 오일층을 발견했다.

원시부존량은 세부 평가 작업을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 15-1/05 광구는 SK이노베이션이 2003년 원유 생산을 시작한 15-1 광구와 함께 쿨롱(Cuu Long) 분지 내에 위치

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2월 베트남 정부와 15-1/05 광구에 대한 광권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 회사는 이번에 발견한 락따짱 구조와 인근 락따방 구조에서 2015년 일 최대 2450배럴의 시험 생산 결과를 취득, 상업성 있는 원유 부존량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락따방 구조는 작년 1월 상업성을 선언하고, 현재는 2021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준비 중이다.

베트남 15-1/05 광구는 SK이노베이션이 25%, 미국 머피(Murphy)가 40%, 베트남 국영석유사인 PVEP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카드가 이렇게 심쿵 해도 돼요?



신한카드 미니언즈 에디션

신한카드의 혜택은 그대로, 미니언즈의 귀여움은 제대로
마침내, 세상에 없던 세상 귀여운 카드의 탄생!



신한카드 미니언즈 에디션 신청하고 한정판 스티커 받자!
• 대상 : 신한카드 미니언즈 에디션 발급 고객 선착순 15만 명 (재고 소진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shinhangcard.com)

신한카드 미니언즈 에디션 이용하고 5천 원 캐시백 받자!
• 기간 : 2019년 5월 31일까지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 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3%,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함) - 일사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 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기켜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 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 연회비 Deep Dream 체크 없음 / YOLO VISA 1만8천원 국내전용 1만5천원 / YOLO Tasty VISA 1만3천원 S& 1만원 ※ 신한카드 미니언즈 에디션 해외영용(VISA)으로만 발급 가능 ※ 계약 체결 전 전월 실적 및 할인한도 등 관련 내용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간 인상/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및 고객센터(1544-7000) 문의 ※ 여신금융협회 상의필 제 2019-C2b-03491 호(2019.04.25-2020.04.25)

“고맙다, 넷플릭스”... LG유플러스, 호실적에 ‘방긋’

LG유플러스가 스마트홈 사업 호조 등으로 인해 호실적의 성적표를 받았다. 또 올해는 5G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IPTV를 비롯한 스마트홈 사업 호조 등으로 2019년 1분기 매출 3조204억 원, 영업이익 1946억 원의 경영 성과를 거뒀다고 2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3.7% 각각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326억 원으로 14.8% 늘었다.

영업이익 중 무선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1조344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 및 결합가입자 증가 등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총 순증 가입자 27만 명 등 가입자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 감소 영향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선 가입자 성장은 △세계 최초 5G 상

넷플릭스 콘텐츠 독점제공 효과 키즈·시니어 특화 서비스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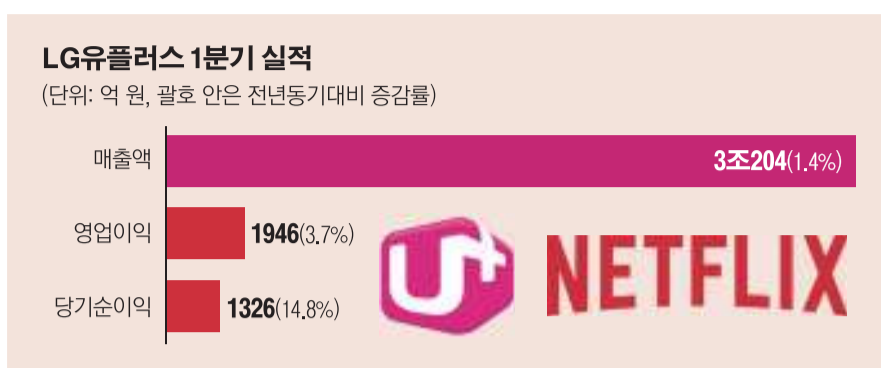
IPTV·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쑥 스마트홈 사업 두자릿수 성장세

1Q 순익 1326억...14.8% 경증

“5G 성장기반 다지는 한 해 될 것”

용화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 △고객 맞춤형 영상청구서 제공 등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국내 최초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혁신적 요금제 출시 △U+아이돌Live 등의 요인이 적용됐다.

스마트홈 수익은 IPTV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성장 등에 따라 전년 동기 (4407억 원) 대비 13% 증가한 4979억 원



을 기록해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지속했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동기(367만2000명) 대비 13% 증가한 414만9000명을 기록했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역시 411만1000명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5.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스마트홈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넷플릭스 콘텐츠 독점 제공에 따른 영

향과 U+tv 아이돌나라 등 특화 서비스의 인기가 계속되고 50대 이상 세대를 겨냥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 출시 등이 긍정적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는 “지난해 탑재한 넷플릭스 덕분에 가입자가 늘었다”며 “올해 2월 헬로비전 인수 결정으로 인해 유료방송과 통신 산업을 융합하고

IPTV 사업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프로야구 콘텐츠가 5G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누적 이용자 2000만 명을 달성한 U+프로야구 서비스가 4K 화질을 통해 5G 서비스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분기에도 스마트홈 부문의 수익 성장세를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5G 시장에서도 우위를 확보해 무선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5G 시장 투자에 따른 영업손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올해는 5G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면서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전동 킷보드 공유플랫폼 ‘무한경쟁’ 돌입

‘킷고잉’ 가입자 3만 명 돌파 O2O 결합 신개념 ‘씽씽’ 론칭 ‘다트’ ‘디어’ 등 10여곳 서비스

국내 대학가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전동 킷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며 이동의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동 킷보드 시장이 강남과 경기도 판교, 대학가 주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킷고잉’은 현재 가입자 수 3만 명을 넘어섰으며 600대의 전동 킷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전자기업인 톱크웨어는 전동 킷보드 ‘로드 기어’를 출시하며 보급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피유엠피(PUMP)는 전동 킷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 서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씽씽은 O2O 결합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모델로 라이프케어 전문 브랜드 ‘핑퐁’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또 다른 전동 킷보드 공유 서비스 ‘디어’는 지난달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전동 킷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는 ‘다트’와 ‘고고씽’ 등이 있으며 현재 약 10곳의 스타트업이 전동 킷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동 킷보드 공유 서비스는 길가에 세워진 전동 킷보드에 QR코드 등을 스캔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하는 곳과 반납하는 곳은 모두 ‘길가’로 이용자가 편한 곳에



모빌리티 스타트업 피유엠피가 2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전동 킷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을 선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워두고 앱을 통해 반납 처리하면 직원들이 와서 직접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곤 한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배터리 교체, 킷보드 점검, 수리 등을 통해 이동수단에 문제없도록 철저한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동 킷보드 서비스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등 사무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엔 가깝지만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 애매한 거리를 전동 킷보드 공유 시장이 파고든 것이다. 특히 매 시간 단위로 요금이 책정되는 차량공유와는 달리 분 단위로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사용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동기 구분돼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며 여가로 즐기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전동 킷보드 공유 서비스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친환경적이며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테더 코인’ 7억달러 잔고부족 사태 업비트는 강 건너 불구경?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잔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테더(Tether·USDT) 코인의 거래를 2년 가까이 지원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더 코인은 미국 검찰총장이 직접 나설 만큼 위험성이 큰 코인이다.

2일 업비트는 테더와 관련한 잔고 부족에 대해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테더는 테더사가 달러 보유액만큼 발행해 1테더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코인이다. 특정 가치의 시세를 고정해 가상화폐를 ‘스테이블(Stable) 코인’이라고 부른다. 테더는 신뢰할 만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

과 비슷한 규모다.

앞서 레티사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약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테더는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달러 보유액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투자자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자료의 삭제·수정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효한다”고 덧붙였다.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재단과 관계사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다. 테더 보유자들이 모두 테더의 현금화를 하려는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할 때, 이를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셈이다.

국내 주요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는 2017년 서비스 출범 초기부터 유일하게 테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업비트는 18개월간 거래를 지원하면서도 입·출금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업계에선 온전한 거래가 되기 위해선 입·출금 기능이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업비트 스스로도 테더 잔고 의혹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엄격히 말해 부실 상자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달러 환율과의 연계성 등 각 스테이블 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출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빗은 지난해 11월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 ‘USD코인(USDC)’의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업비트가 2년 가까이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테더 잔고 부족 의혹이 수년간 지속돼 왔고, 미국 검찰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업비트도 상장 폐지를 할지, 입출금을 지원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1테더=1달러’ 가치고정 코인 최근 잔고부족 사실로 밝혀져 美 검찰총장 직접 위험성 지적 국내는 업비트만 거래 지원 18개월간 입출금 막아놓아... 잔고의혹 명확히 판단 못한듯 ‘투자자들 위험 노출’ 지적도

지 않아 발행량만큼의 달러 잔고가 부족할 것인 의혹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예컨대 테더재단의 달러 보유액이 테더 발행량보다 적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테더를 보유한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최근 테더사의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 법률 고문은 “테더는 USDT 발행량의 74%를 현금 및 현금 등가물(단기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규모는 21억 달러”라고 밝혔다.

테더의 총 발행량은 28억 달러(코인마켓캡 기준)다. 보유해야 하는 현금이 약 7억 달러나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담보 가치는 최근 미국 검찰 측이 테더사의 관계사인 비트파이넥스의 손실에 테더가 사용했다고 밝힌 것

SGA 창립 15주년... “보안 벤처서 종합 IT그룹으로 성장”

종합 IT기업 SGA가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서울에서 열린 창립 행사에는 SGA를 비롯한 SGA솔루션즈, SGA임베디드, SGA블록체인, 엑시스인베스트먼트 등 SGA의 종속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창립 15주년을 축하했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보안IT벤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종합 IT그룹으로 성장한 SGA의 15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한눈 팔지 않고 보안, 인증 분야에 집중해 회사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유진 SGA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거

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께 헌신과 열정으로 책임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SGA가 구축한 서버보안, 문서 위변조, 파이드(FIDO) 등 솔루션 기술력과 공공 및 금융권 IT서비스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거듭해 향후 100년 지금의 임직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5곳 중 3곳 적자... 위기의 지역소주

지역 소주업체가 위태롭다.

지역 소주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경월소주, 충북소주 등이 줄줄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현재 대전, 전라, 부산·경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소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유통에 드라이브를 건 기업도 있었지만 서울지역 점유율 일부를 올리는 대신 오히려 지방에서 경쟁 브랜드에 밀리는 수모를 당한 사례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같은 지역 소주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돼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지역 소주 기업 5개사가 가운데 3개사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은 대전주조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점유율에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에 크게 밀린 상황이다.

지역 소주 가운데 전국 점유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좋은데이'의 무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 지역 시장점유율 80%를 기록했던 무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브랜드로 성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수도권 마케팅을 펼친 결과 소주시장 3위, 10% 점유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마케팅에 집중한 나머지 지방을 방치한 결과 부산 점유율 1위 자리를 'C1'의 대전주조에 내줘야 했다. 무학은 지난해 9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매출도 23.26% 줄어든 1775억 원으로 고꾸라졌다.

보해양조와 한라산도 무학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보해양조는 영업손실이 110억 원에 달했다. 매출은 무학의 절반이지만 적자는 20억 원이나

지방 '소주'기업 실적 (단위: 억 원)

| 기업명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
| | 매출 | 영업익 | 매출 | 영업익 | 매출 | 영업익 |
| 무학 | 2542 | 519 | 2313 | 289 | 1775 | -91 |
| 대전주조 | 330 | -30 | 506 | 41 | 812 | 104 |
| 보해양조 | 1155 | -60 | 996 | 21 | 820 | -110 |
| 한라산 | 215 | 15 | 241 | 15 | 232 | -1 |
| 맥키스컴퍼니 | 605 | 121 | 600 | 112 | 584 | 11 |

*매출 및 영업이익은 천만 단위에서 반올림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무학, 매출 23% 폭... 91억 손실 보해양조·한라산도 '적자의 늪' 대전주조, 104억 흑자 홀로 성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 소주 가운데 대전주조만 나홀로 성장을 이어갔다. 2016년 33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812억 원으로 2.5 배 가량 늘었고 1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침체의 길을 걷는 지역 소주업체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대전주조는 무학이 전국 유통으로 한눈을 파는 사이 부산 경남 지역 점유율을 높이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전주조는 무학에 이어 전국 점유율도 5~6%를 기록 중이다. 현재 소주 시장 점유율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51~52%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20%, 무학이 10%, 대전주조 5~6%, 보해 2~3%, 한라산 1.5% 수준이다(작년 말 기준).

대전주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소주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한정된 시장 △낮은 출고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꼽을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1일부터 참이슬(360ml)

의 출고가를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6.45%) 올렸다. 이에 비해 지역 소주의 출고가격은 여전히 900원대에 머물러 있다. 무학의 좋은데이(360ml) 출고가는 915.36원으로 2015년 가격을 인상한 이래 4년째 동결 중이다. 이는 2015년 하이트진로가 출고가를 인상할 당시 961.7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고가가 낮으면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류업체의 유통 과정상 제조사에 유리한 측면은 거의 없다.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선두 기업의 가격에 맞춰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다.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 셈이다. 유통망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출고가가 곧 주류기업의 매출이지만 소주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소비보다 식당과 주점 등에서의 소비가 많다.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출고가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기보다 브랜드와 상관 없이 소주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통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지 않은 소주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망고수박 맛보세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강남점, 경기점에서 '망고 수박'이라 불리는 '블랙보스 수박'을 선보인다. 타원 형태의 블랙보스 수박은 한 개당 2~3kg 정도의 크기로 같은 일반 수박보다 진한 초록색을 띠며 과육은 노란색이어서 일명 '망고 수박'으로 불린다. 신세계백화점이 선보이는 블랙보스 수박은 함안에서 생산한 것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신라호텔 자장면·롤케이크, 40년 전 맛 그대로”

개관 40주년 '뉴트로' 행사 식음 업장별 특별메뉴 준비

서울신라호텔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40년 전 맛을 재현한다.

서울신라호텔은 40년 전 초창기 신라호텔맛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해 중장년층에는 향수를, 젊은 층에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뉴트로(복고)' 행사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신라호텔은 식음 업장별로 특색 있는 '뉴트로' 음식을 준비했다.

우선 중국 정통요리를 선보이는 '팔션'에서는 40년 전 '옛날 자장면'을 선보인다. 5월 한 달 동안 선보이는 특별 메뉴인 옛날 자장면은 '팔션'이 문을 연 1979년부터 1988년까지 판매하던 상품이다. 각각 짭짤한 감자와 달걀프라이가 올라간 '옛날 자장면'은 옛날의 맛과 모양을 재현했다. 모양새는 옛모습을 표방했지만, 맛은 달



콤하고 느끼하지 않은 '명품 자장면'을 구현했다. 황두(黃豆)를 곱게 다져 만든 소스에 얇게 구운 삼겹살을 섞어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했고, 예전 방식대로 양파, 대파, 양배추 등의 채소를 얹었다.

베이커리 '패스트리부티크'에서는 젤리 롤케이크를 준비했다. 초창기 서울신라호텔의 최고 인기 제품이었던 젤리 롤케이크는 돌돌 만 스펀지케이크 사이를 짙은

채운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라호텔이 개관한 197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됐고,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약 20년 만에 다시 출시됐다.

다른 식음 업장도 호텔신라 창립기념일인 5월 9일에 특별 이벤트를 통해 개관 40주년을 기념한다.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뷰'는 호텔신라의 창립기념일인 5월 9일 단 하루 동안만 코너별 업그레이드 메뉴를 선보인다. 중식 코너에는 한방 꼬리찜, 양식 코너에는 트러플 관자, 일식 코너의 경우 스시와 사시미 섹션이 다채로운 고급 식자재로 업그레이드된다.

국내 유일 3년 연속 '미쉐린(미슐랭) 3스타'로 선정된 한식당 '리엔'은 주문 메뉴에 '깜짝 코스' 1종을 추가로 구성했다.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도 주문 메뉴에 식전 요리(아무즈 부쉬)와 디저트를 추가 제공하며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전한다. 일식당 '아리아케'에서도 특별 디저트를 준비했다.

백미선 기자 only@

이마트 노브랜드, 충북 제천 상생스토어 오픈

중앙시장 1층 265㎡ 규모

이마트는 8번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노브랜드 제천 중앙시장점'을 프리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정식 개장일은 4일이다.

노브랜드 제천 중앙시장점은 충청북도에 여는 첫 번째 상생스토어로, 시장 1층에 265㎡(약 80평) 규모로 입점한다.

노브랜드 제천 중앙시장점은 다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와 달리 신선식품인 수산·축산 상품을 판매한다. 이는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산과 축산 상품을 보강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제천 중앙시장의 주요 판매 상품은 패션, 잡화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가장

신선식품을 보강해 윈윈 쇼핑이 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이 다시 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범희 이마트 노브랜드 상무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기즈 라이브러리, 카페, 고객 센터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복날 같은 봄날 보양식 미리 챙기세요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는 송명진(39) 씨는 해신탕, 양곱탕, 민물장어 등 보양식 메뉴를 최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송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일찍 찾아오는 여름 같은 봄 날씨에 벌써부터 보양식을 찾게 된다. 특히 손질이 다 된 세트 제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즐겨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찾아오는 초여름 날씨에 보양식 판매도 빨라지는 추세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등도 이커머스를 통해 손질된 보양식 재료를 주

년 동월 대비 약 4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양식은 전문점을 찾아가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과 달리 손질하기 어려운 보양식을 온라인에서 손질된 상태로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례로 보양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어는 G마켓 신선식품 전문관인 GFresh(지프레시)에서 판매 중이다. 장어 손질 전문가가 머리와 내장, 뼈를 제거해 진공포장한 뒤 당일 택배로 발송, 집에서도 신선한 장어를 해 먹을 수 있다. '맛끈푸드 민물장어 전

G마켓, 4월 말 보양식 판매량 작년 대비 3배 쯤 '훈훈수산 푸집한 보양식' '정직한밥상 진한추어탕' 간편한 조리만 거치면 완성되는 보양식 제품 인기

문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외식보다 저렴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어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초복을 한 달 반 이상 남겨둔 최근 일주일(4월 22일~4월 28일)간 G마켓에서 보양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로 최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로는 장어가 275%로 가장 높은 판매신장률을 보였으며 굴 63%, 문어 46%, 전복 41% 순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오리고기 판매량은 216% 증가했고, 이어 구이용 한우는 33%, 삼계탕 용닭은 27%가 늘었다. 마켓컬리에서도 올해 3~4월 보양식 관련 매출은 전

남영광 두툼한 장어(1kg, 2만9900원)'는 프라이팬에 구워 동봉된 구이 양념소스를 바르기만 하면 된다.

간편한 조리만 거치면 완성되는 보양식 세트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G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훈훈수산 푸집한 보양식세트(2만1500원)'를 꼽을 수 있다. 닭, 문어, 전복, 새우, 마늘, 오가피 대추, 황기 등이 미리 손질되어 있어 압력밥솥이나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완성된다. 이 외에도 '하림 삼계탕보양식(1만4380원)', '정직한밥상 진한추어탕(1만3800원)' 등은 저렴한 가격에 번거로움 없이 가열하기만 하면 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비뇨기 ‘필러의 힘’ K바이오 다시 난다

음경확대 필러 제품



| 기업 | 휴젤 | 한미약품 | 메디톡스 |
|----|---|---|---|
| 제품 | 더 채움 셰이프 10 | 구구필 | 포텐필 |
| 효능 | - 히알루론산 HA필러 - 음경 둘레 확대 적응증 획득 - 부작용 줄고 생체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 - 시술 시간 10분 내외 -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 - 히알루론산 HA필러 - 음경 둘레 확대 적응증 획득 - 부작용 줄고 생체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 - 시술 시간 10분 내외 - 시술 직후 일상생활 가능 | - 히알루론산 HA필러 - 무절개 10분 안에 시술이 짧고 간단 -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 가능 - 대략 1~2년 지속효과 - 식약처 품목허가 접수상태 |

발기부전치료제 성장세 주춤
긍정적 평가 나오며 라인업 확대

휴젤 ‘채움 셰이프 10’ 새로 내놓고

한미약품 ‘구구필’로 시장선점 나서

메디톡스는 ‘포텐필’ 연내 상용화

체외충격파 ‘케어웨이브’도 출시

비뇨기 시장에서 사용되는 필러·의료기기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들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업계의 선제적인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체진피 시술과 수술 등을 포함한 음경확대 관련 시장은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음경확대 필러 시장은 3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음경확대에 필러가 오프라벨(용도 외 사용)로 음성적으로 이용돼 왔으나 관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덕에 국내 기업들이 음경확대용 전용필러와 의료기기를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독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외연 확장이 눈에 띈다.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음경확대 필러 ‘채움 셰이프 1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국산 인체 조직과 신경조직 등에 분포된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HA필러 제품이다.

2012년 개발을 시작해 음경확대 사용목적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식약처 허가를 통과했다.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휴젤은 안전에 비해 많은 양이 필요한 만큼 제품 용량을 기존 연면 필러의 1ml에서 별도로 개발한 10ml 대용량 주입으로 늘렸다.

이성호 동탄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음경확대용 HA필러 임상시험에서 24주가 지난 뒤 음경 둘레와 길이를 측정해 결과 평균적으로 둘레는 21mm, 길이는 24mm

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휴젤은 한미약품과 공동 마케팅을 약속했다. 휴젤은 ‘채움 셰이프 10’, 한미약품은 ‘구구필’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에 휴젤은 기존 한미약품의 마케팅 전략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팍팍’과 ‘구구’, ‘구구탐스(복합제)’ 등 기존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구구필’이 추가되며 비뇨기 시장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톡스도 음경확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메디톡스는 1ml 히알루로산을 투약하는 연면 필러를 20ml의 대용량으로 확대해 음경확대용 필러 ‘포텐필’을 개발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접수하고 하반기에 허가 승인을 받아 연내 상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자 시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 투여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필러가 얼굴뿐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해 필러의 치료 옵션 차원에서 음경확대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며 “많은 오프라벨 필러시장을 대체할 해도 음경확대용 HA필러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톡스의 국내 판매 법인 메디톡스코리아는 국산 의료기기 최초로 식약처에서 발기부전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체외충격파 의료기기 ‘케어웨이브(CAREWAVE)’를 출시하며 관련 시장 사업 다각화에 노력 중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사업 확장 움직임에 힘입어 음경 확대 시장이 당분간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필러·보톡스 등 여성 미용시장, 제네릭이 판을 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등이 모두 포화상태인 가운데 음경확대 시장이 새로운 사업 확장 분야로 떠올랐다”며 “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음성적이었던 시장 정화와 함께 당분간 음경확대 필러 및 의료기기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힘찬병원, 사할린에도 문 열었다

관절·척추 재활치료에 중점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韓·러 의료교류 교두보 마련



러시아 현지 환자(이즈마일로바 라미자)가 사할린 힘찬병원에서 부평힘찬병원 주치의에게 원격 화상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힘찬병원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이 한국 병원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사할린 힘찬병원’을 개원했다.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사할린)에 지난달 29일 개원한 사할린 힘찬병원은 총 200평 규모로 1층은 비수술 주사치료실, 2층은 원무과, 외래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을 마련했다.

특히 관절·척추 수술 특성상 사후 재활의 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척추 비수술 주사치료와 재활·물리치료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할린 힘찬병원은 한국의 의사와 러시아 의사, 물리치료사가 화상을 통해 직접 러시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힘찬병원 전문의가 화상시스템을 통해 사할린 현지에 있는 의사와 함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물리치료사가 배석해 진료 후 물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화상진료를 통해 초진환자는 물론, 한국 힘찬병원에서 수술한 러시아 환자들은 사할린

힘찬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에 있는 주치의와 화상진료를 통해 수술 후 회복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도 가능해졌다.

사할린 힘찬병원은 극동러시아 환자 유치 및 사후관리 거점병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척추 비수술 주사치료나 물리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현지에서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국내 힘찬병원으로 인계하는 투 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러시아는 의료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관절·척추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 치료받는 사례가 많아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진출·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할린 힘찬병원이 러시아와 한국

의 의료 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러시아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힘찬병원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병원 내에 ‘힘찬 관절·척추센터’를 개소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 최초의 종합병원급 한국식 병원인 ‘부하라 힘찬병원’을 6월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이 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에도 동행한 바 있다.

사할린=노은희 기자 selly215@

이수찬 원장 “한국 선진의료, 러 진출 가속화”

현지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러 의사 국내 연수도 강화



이수찬 대표원장이 러시아 ‘사할린 힘찬병원’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힘찬병원

“문을 연 ‘사할린 힘찬병원’을 보니 이제서야 힘든 기업들이 싹 싹겨내려가는 기분이네요.”

러시아 ‘사할린 힘찬병원’ 개원식에서 만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개원까지의 힘든 여정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인연이 깊은 사할린에는 49만 명의 인구 중 러시아인 다음으로 한국인의 비중(약 3%)이 가장 높다. 특히 이곳의 의료 환경이 낙후돼 있다 보니 힘든 노동으로 척추·관절에 문제가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러시아 현지 의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할린에 우선적으로 거점병원을 국내 최초로 개원했다.

그러나 사할린에 개원을 하기까지는 그 어려운 과정이 많았다고 털어냈다.

이 원장은 “현지에서 해외 의사의 진

황에 맞게 ‘원격화상진료’와 ‘러시아의 사 연수’에 힘을 쏟고 있다.

병원은 현지의 원격화상진료를 통해 먼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한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수술이 끝난 환자들은 한국 의료진에게 끝까지 경과를 확인받을 수 있어 힘찬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8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힘찬병원은 한국 의료를 전파하고 질적으로 현지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점별로 러시아 의사들의 국내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할린 힘찬병원을 기점으로 러시아 내 한국 선진 의료 확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원장은 “사할린 힘찬병원에 한국식 의료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한 후 관절·척추뿐 아니라 다른 과도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형태로 만들어 볼 계획”이라며 “극동러시아 지역 외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등에 추가적으로 진출해 러시아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노은희 기자 selly215@

GC녹십자, 독감백신 누적생산 2억 도즈 돌파

GC녹십자는 지난달 기준 자사 독감백신의 누적 생산 물량이 2억 도즈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1도즈는 성인 1명이 1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전 세계 2억 명의 인구가 GC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한 셈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내수용 독감백신 생산량 1억 도즈를 돌파한 데 이어 국내 백신 제조사 중 처음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을 포함한 누적 생산 2억 도즈 고지를 밟았

다. 이를 일련로 늘어놓으면 경부고속도로를 20번 왕복하고도 남는다.

회사 측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빠른 행보가 대기록 달성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출시 이듬해인 2010년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출 국가만 총 45개국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철



GC녹십자 임직원들이 독감백신 누적 생산 2억 도즈 돌파를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GC녹십자

장사로 그칠 수 있는 독감백신 사업을 연중 생산 체계로 확장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출처 중 하나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백신 입찰에서 6년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도 357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독감백신 수주를 이끌어 내며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드러내고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유정란 연중 확보 등 최적화된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내수와 수출 분야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독감백신은 생산량과 비례해 기술력이 발전하는 만큼 신규 시장 공략을 통해 글로벌 백신 제조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2년간 준비했는데... '발행어음 인가' 애타는 KB證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이달 '인가' 못 받으면 장기화 우려
증선위원 구성 완료에 '속도전' 기대

'오매불망(寤寐不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KB증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업계에서는 증선위원 공석이 채워지는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KB증권이 무난하게 인가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특히 KB증권이 이달 중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어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8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KB증권은 지난달 19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려 2년간 인가신청과 신청취소, 재신

청과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실사 등을 거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증선위는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직원 횡령 사건 등 내부 상황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 추측 등이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증선위원 중 상당수가 공석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위 정례

회의를 앞두고 신임 증선위상임위원회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을 임명하고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증선위 비상임위원에 재선임하는 등 공석이었던 자리를 모두 채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증선위원 증선위 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다"면서 "증선위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B증권 역시 기대감이 커졌다. 무엇보다

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업종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KB증권을 선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비유될 정도"라며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지난해 시험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들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B증권이 이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스닥기업 '투자주의 종목' 5년 새 3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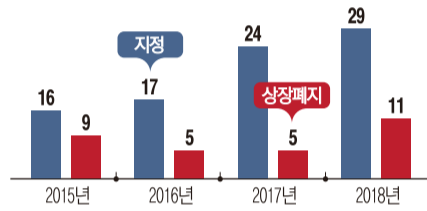
거래소, 경남제약·라이트론·포스링크 등 35곳 지정
신외감법 시행 회계감사 강화때 부실기업 더 늘어날 듯

코스닥 상장사 중 기업부실 위험으로 상장폐지 위협에 처한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부실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사 1332개사 중 35개사가 기업부실 위험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011년 도입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2013년 16개사, 2016년 17개사, 2018년 29개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9년간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총 206개사(지난해 말 기준) 중 절반인 102개사(49.5%)가 실질심사 또는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됐다. 올해 역시 신외감법의 여파로 다수의 기업이 무더기 상장폐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는 영업, 재무, 경영 등 기업부실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도다.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지정되며, 해당 중

환기종목 정기지정 및 상장폐지 현황
(단위: 기업 수) ※출처: 한국거래소



목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재무상태(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자본잠식, 매출액 규모 등), 혹은 잦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 공시, 빈번한 유상증자 등이 심사 대상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재무구조에서 총당부채 등 감사인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실제 회사가 계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유를 대면 넘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신외감법 영향으로 감사인이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를 대

비할 여력이 없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감사의견 거절 및 기업부실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경남제약, 라이트론, 포스링크, 코렌텍, 화진, 차이나그레이트, 케어젠, 데코앤이, 바이오빌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현재 모두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경영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감사의견 한정 및 비적정 의견이 2회 연속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된 신외감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 반영됐다"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실 위험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에 대해서는 경영권 변동이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시행할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등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예고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비적정 의견' 상장사 2년 새 2배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국내 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 의견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2.9%로, 2016년 1.5%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은 3배가량 높아졌다.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로,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2%)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 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 추이
(단위: 개사)

| 연도 | 코스피 | 코스닥 |
|-------|----------|----------|
| 2016년 | 7(0.9%) | 21(1.9%) |
| 2017년 | 8(1.1%) | 30(2.7%) |
| 2018년 | 10(1.3%) | 46(3.8%) |

※출처: 삼정KPMG

지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수는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공시의 원인은 주로 회사 측 준비미비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의 부담이 증대된 결과로 해석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횡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해 연평균 3.98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케이션 횡수가 4회 이상인 비율은 60%로 감독당국에서 권장하는 수치(4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향후 핵심 감사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횡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www.childfund.or.kr

잔디 놀다!
 잔디 놀아~
 얼마나 놀았을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해외법인 내부거래로 화승엔터프라이즈 매출 확대

〈중간 지주사〉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화승

화승그룹의 지주사 화승엔터프라이즈가 해외법인의 내부거래 속에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1953년 신발류와 고무제품·공업약품 제조업체로 시작한 화승은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르까프와 케이스위스 등으로 사세를 키워왔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승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화승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상장사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알앤에이 등 국내외 총 5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5년 설립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사업보고서상 지주사로 표기돼 있지만 그 위에 화승인더스트리가 최대주주(71.73%)로 있어 사실상 그룹 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

최대주주 '화승인더스트리' 베트남 법인 일감 몰아주기 발생 수익 '화승엔터'로 편입 작년 매출 8792억... 14% ↑ 계열사간 내부거래 70% 넘어

물 출자를 통해 화승인더스트리로부터 베트남 법인 화승비나(HWASEUNG VINA)를 넘겨 받았고 현재는 매출 상당 부분을 화승비나를 통해 취하고 있는 구조다.

지난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연결 매출액은 8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5% 증가했다. 2016년 64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최근 3년간 금액의 앞자리가 바뀌는 추세다. 내부거래 비중은 83.28%로, 2017년(89.65%)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80%대라는 높은

화승그룹 내부거래 현황

(단위 : 억 원) ※출처 : 금융원 전자공시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매출 | 6402 | 7682 | 8792 |
| 내부거래 | 5949 | 6887 | 7322 |
| 비중(%) | 92.91 | 89.65 | 83.28 |
| 영업이익 | 438 | 585 | 403 |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승인더스트리 71.73%)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매출 | 4709 | 3718 | 3737 |
| 내부거래 | 3002 | 2860 | 2851 |
| 비중(%) | 63.76 | 76.94 | 76.28 |
| 영업이익 | 280 | 135 | 118 |

화승네트웍스 (화승T&C 45.43%, 화승소재 36.90%, 화승엑스월 17.67%) (화승인더스트리 71.73%)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매출 | 4709 | 3718 | 3737 |
| 내부거래 | 3002 | 2860 | 2851 |
| 비중(%) | 63.76 | 76.94 | 76.28 |
| 영업이익 | 280 | 135 | 118 |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주사는 자회사들의 배당이익 등을 통해 운영되지만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경우 해외 법인의 매출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 7332억 원 중 7019억 원이 화승인더스트리로부터 비롯됐는데, 이는 사실상 자회사 화승비나와 화승인더스트리간의 거래로 봐도 무방하다.

화승인더스트리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화승비나에 재고 매입 명목

으로 5074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승비나의 총 매출액이 5728억 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화승인더스트리를 통해 화승비나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수익은 고스란히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연결 매출로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지난해 수취한 배당금은 약 33억 원 수준이지만 연결매출액은 8792억 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외에 화승네트웍스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하다. 화승T&C, 화승소재 등 계열사들의 지분으로만 이뤄진 화승네트웍스는 무역업, 유통업, 산업용 고무제품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화승네트웍스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76.28%다. 2015-2016년 60%대의 비중을 보였지만 2017년 76.94%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70%대를 기록 중이다. 반면 매출은 2015년 5228억 원을 기록했지만 줄곧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해 3737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고대영 기자 koda00@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펙코가 만들어갑니다.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변상기 국동 대표, 5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 불참 이유는 오너 2세에 지분 밀어주기?

유가증권 상장사 국동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가운데 최대주주인 변상기(사진) 대표가 불참을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증자가 원활히 진행되면 변 대표의 지분율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동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4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0.9760주로 1350만 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현재 발행 주식 총수 1404만 7495주의 96.1%에 해당한다.

신주 예정 발행가는 1780원으로 유상증자가 결정된 지난달 30일 증가 대비 30% 낮은 수준이다. 신주 발행가는 6월 12일 확정된다. 구주 청약은 6월 17-18일, 납입일은 25일이다.

국동이 5년 만에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것은 앞서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CB)의 원리금 상환 목적이 크다. 국동은 2016년 6월 200억 원 규모로 CB를 사모 발행했으며 현재 115억3000만 원 규모의 CB가 남아 있다. 전환가액은 376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높아 회사 측은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청구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획대



로 유증이 성사되면 CB 상환 외에 인도네시아 공장 신축에 50억 원, 원부자재 구매에 75억 원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증자와 관련해 국동 최대주주인 변상기 대표이사과 특수관계인들은 배정 물량 대비 38.5%인 94만9010주만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주주는 변 대표(9.7%)와 부인인 최주연 씨(0.6%), 아들인 변영섭 이사(2.5%) 외에 특수관계인(5.2%) 등이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변 대표가 청약에 불참하는 대신 변 이사가 배정 주식보다 많은 79만여 주, 최 씨가 8만여 주를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증성료를 전제로 변 대표 지분은 5%로 줄어드는 반면 변 이사 지분만 4.2%로 늘어 최대주주 지분은 12.6%로 축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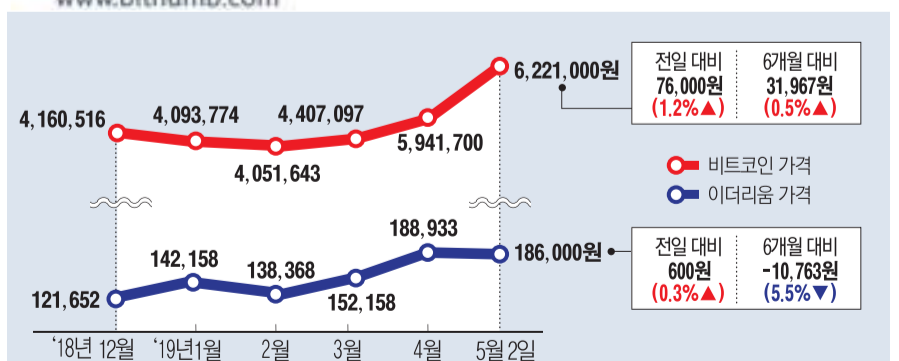
변 대표가 청약에서 빠지는 것은 유증을 통한 오너 2세의 지분 증가 목적 외에 개인의 자금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 대표는 현재 신한금융투자주와 주식담보계약을 맺고 있는데, 담보로 잡힌 주식 물량은 개인 소유 주식 134만860주 대비 98.6%에 달한다. 해당 주식담보대출의 반대 매매 주가는 1900원에 형성돼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5월 2일 17: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316,500 | 7,900 (2.6%▲) | 모네로 | 76,000 | 3,250 (4.5%▲) |
| 리플 | 353 | - (0.0%) | 비트코인골드 | 19,210 | 260 (1.4%▲) |
| 라이트코인 | 84,950 | 700 (0.8%▲) | 이더리움 클래식 | 6,665 | -85 (1.3%▼) |
| 대시 | 135,100 | 5,100 (3.9%▲) | 퀀텀 | 2,889 | 1 (0.0%)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4100억 거품” vs “국토부 지침 따랐을 뿐”

북위례 분양가 갑론을박

경실련 “적정건축비의 2배 가구당 2억원 더 내”

송파·하남 “절차 문제 없어 건축비 내역 공개해야”

북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계룡 리슈빌 등 3개 아파트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총 4100억 원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이외에 간접비, 가산비가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비가 평(3.3㎡)당 900만 원을 웃돈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별 평당 건축비를 보면 포레자이 952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912만 원, 계룡 리슈빌 988만 원이다. 경실련이 주장한 평당 적정건축비 45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등을 통해 적정건축비를 450만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3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비 이외 간접비와 가산비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산비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 테라스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단지별 간접비와 가산비 합계를 보면 포레자이 평당 483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400만 원, 계룡 리슈빌 599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서 산정된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이 원가와 맞는지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과 하남시청은 절차상 문제없이 분양가를 심사했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와 일선 업무 간에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이나 지자체는 현행 법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총액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공시항목은 규정상 나열돼 있지만, 공종별로 금액이 적절하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형 건축비를 인정한 상태에서 판단을 시작하는데 고시된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접근하면 당연히 과다 포장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나열은 돼 있지만 공시항목을 공종별로 어떻게 검토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내역을 국토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다 보니 각사마다 공사비를 어느 항목에 배분해야 할지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심사 절차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갭투자’ 열기 꺾인 동대문·성북·강북

전세가율 70% 붕괴... 59.65%로 성북·강북 물량 늘어 전세가 내려 동대문은 개발 호재로 집값 올라

서울 ‘갭투자 성지’로 알려진 동대문, 성북, 강북구가 벌어지는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차이로 예전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1년 전까지 수천만 원으로 가능하던 갭투자가 현재는 수억 원을 동원해야 할 판국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길음뉴타운2단지푸르지오 전용 77㎡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기자본 6000만 원을 투입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억 원가량이 필요해졌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초 기준으로 이 단지의 전용 77㎡ 매매 시세는 ‘3억8500만~4억2000만 원’으로 당시 전세 시세 ‘3억3000만~3억5500만 원’과의 차이는 6000만 원 내외였다. 현재는

매매시세 ‘4억5500만~5억1500만 원’, 전세 시세 ‘2억6000만~2억9000만 원’으로 차이가 2억 원가량 벌어졌다.

성북구를 포함해 전세가율에서 매매가격을 나는 전세가율이 높아 갭투자 여건이 좋던 동대문, 강북구도 전세가율이 급감했다.

감정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0.42%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중위가격)은 올해 4월 59.65%를 기록, 10.77%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동대문(79.37→61.57%, -17.80%포인트), 성북(79.85→67.04%, -12.81%포인트), 강북(77.22→64.45%, -12.77%포인트)의 전세가율 하락은 평균 이상이였다.

성북과 강북의 경우 최근 늘어난 입주 물량이 전세가율을 끌어내리며 ‘갭’을 더 벌렸다. 2월 래미안길음센터피스(2352가구)와 래미안아트리치(1091가구) 등 대단지가 동시에 입주를 진행하며 일대 전세 공급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해 성북과 강북의 전세가율 변

동대문·성북·강북 아파트 전세가율 (단위: %, 4월 기준)

| | 2018년 | 2019년 | 격차(%p) |
|-----|-------|-------|--------|
| 동대문 | 79.37 | 61.57 | 17.8 |
| 성북 | 79.85 | 67.04 | 12.81 |
| 강북 | 77.22 | 64.45 | 12.77 |
| 서울 | 70.42 | 59.65 | 10.77 |

*전세가율: 중위매매가격/중위전세가격
*출처: 한국감정원

동률은 각각 -2.91%, -3.05%를 기록, 서울 평균(-2.03%)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동대문은 청량리역 인근으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며 아파트값이 급격히 올라 전세 가격을 따돌렸다. 지난해 4월까지 동대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4억5400만 원으로, 성북(4억6000만 원)과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청량리역세권에 동북권 교통 호재가 집중되면서 올해 4월 기준 동대문 중위매매가격은 5억8000만 원, 성북구는 5억385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벌리게 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동네로 나들이 가요”... 놀이공원 인근 단지 눈길

‘삶의 질’ 관심 커지며 인기 주변 인프라 정비도 장점으로

최근 여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놀이공원, 테마파크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희소성과 차별성을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휴양시설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차별점이 부각되고 이는 분양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양지 인근 아파트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소득 증가로 더욱 각광받는 분위기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나들이를 떠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 휴양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인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유원지 인근 분양 단지

| 휴양시설 | 위치 | 단지명 |
|-----------------|------------------|-----------------|
| 부산시민공원·부산어린이대공원 |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 래미안 연지2구역 |
| 반포한강공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방배그랑자이 |
| 서울 어린이대공원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
| 서울랜드·렛츠런파크 | 경기 과천시 별양동 | 과천자이 |
| 화성국제테마파크 | 경기 화성 신남동 | 화성시정역 서희스타힐스 |
| 거제 빅아일랜드 |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개발사업 |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
| 국제문화마을 보리밭 | 전북 군산 조촌동 | 디오션시티 더샵 |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각 사

프라가 정비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만큼 주변에 도로망이 잘 갖춰지고 대규모 공원, 편의시설도 일대에 함께 조성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즐기거나, 산책을 거닐기 좋은 만큼 인근 거주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나 부산 어린이대공원 등은 일대에 카페, 음식점 등 편의

시설도 잘 발달돼 있으며, 방문객들로 늘 북적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규모 공원, 테마파크 등은 온 가족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양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많아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인근 단지가 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세아그룹 핵심 계열사〉

국세청, 세아제강 교차세무조사

본사 창원에 있지만 서울조사국서 검증... 조사강도 높을 듯

국세청이 최근 세아그룹 핵심 계열사 세아제강특수강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세아제강특수강 서울사무소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아제강특수강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형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차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세아제강특수강 본사는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 검증에 나섰다.

교차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제도로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이 유다.

세아제강특수강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세아제강특수강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매출액 1조229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로 현지 입원 병원·체류·후송비 모두 여행사 부담”

대법 “여행사의 통상손해 인정”

후송됐다.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현지 병원비는 물론 보호자의 체류비와 국내 병원 후송비, 국제전화요금 등 일련의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여행객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기획여행 업자를 믿고 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상 안전배려 의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할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한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가족과 함께 여행사가 제공하는 10일간의 호주·뉴질랜드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고 여행을 했다.

A 씨는 귀국을 시를 앞두고 탑승한 투어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후 A 씨는 발작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 입원해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환자이송 업체를 통해 국내 병원으로

A 씨는 국내 병원에서 머리 충격으로 인한 '기타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비용 일체인 4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사고와 A 씨 정신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지 병원과 국내 병원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여행사의 배상책임은 20%로 제한해 41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국내에서 계속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여행사의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그물 가득한 봄 멸치 2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어민들이 갓 잡은 봄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뉴스스

“창업 준비 중장년층, 사무실 빌려드려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입주자 모집

세대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캠퍼스 공유사무실 입주를 통해 단체 58개 팀, 개인 122명이 재단의 창업 활동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 소재 중부캠퍼스 공유사무실을 재정비하고 2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창업자 중 66%가 40~60대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

중부캠퍼스는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기존 20명에서 36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장했다. 추가로 늘어난 16석과 공식 8석, 총 24석에 대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시인 사람이며 창업·공익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단체(법인) 설립 후 업무공간이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추가시 500~600%로

서울시는 우수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개

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종전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0%p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 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5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상차와 타고 시니어 '뉴클리어'를 주는 사람들

시니어 고령화는 난항, 쉽게 풀지 마세요

재미있는 인생이후 20년은 즐겁게 준비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향유하다

Agit

COVERSTORY 아지트를 찾아서

PART1.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 - 당신에게 아지트란?
 PART2. 지붕 없는 아지트 - 종로3가역 5년승구
 PART3. 지자체 아지트 - 포레끼리 배우고 우리끼리 놀자
 PART4. TV 속 아지트 - 시니어의 아침, 내 생활대로 먹는 게 최고야!
 PART5. 셀럽의 아지트 - 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다
 PART6. 이별 댄스 - 유령별로 추천하는 시니어 아지트

벨에이징 시니어 괴롭히는 난청 약화 막으려면 보청기 착용해야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신모 씨는 최근 손주를 보는 재미가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내들이 말없이 터진 후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 것이 실의 낙 중 하나였는데, 요즘 무척 손주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졌다. 난청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척더욱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방치하면 약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 교수를 통해 노화로 인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귀촌

귀촌 준비? 그런 것 전혀 없이 내려왔다

함수(鄭煥)가 귀촌을 촉발했다. 양주시 이산면 산기술에 사는 심원복(57) 씨의 얘기다. 어릴 때 경험한 시골 풍경이 일구 아꼈던 그리움을 불러오려하는 거다. 일찍이, 소 천동에 온아지는 석양속의 붉은 햇살처럼 목가적인 풍경들이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밥을 나눠주었던 인정이 타향을 사는 자에게 향수란 근원을 향한 갈증 같은 것. 살아온 여차의 부름처럼 객지를 떠도는 일이지 않던가. 하지만 내일이 들면서 함수가 감어졌던 도란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질 즈음, 심 씨는 서울생활을 후다닥 접었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초연결시대, 노년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융합할 때

이정필 고려대학교 영재교수

해설처럼 나타난 육상 스타 스포츠 스타

장재근

울퉁은 뮤지션, 명랑히 젊은 그의 노래

자연을 실려 온 허남석, 지치지 않는 청춘의 삶을 살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봄 향기 따라 오강만족 나눔을 거닐다

남원 하연 훈향, 훈향 하연 광한무림단 생각났다. 남원에는 친정 광한무림 앞길 갈 대가 없을까

공라라던 때에 마침 강변중앙미술관이 개관했다. 오래된 동네 흥집과 같이 좋은 덕유산 술바람길도 발견했다. 이 신라비가 미술관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쁘었는지 남원을 여행하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물뿜 시가' 종종 생각났다.

자격증 두드림 '先 사회복지사 後 요양보호사'가 효율적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해도,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만민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노인복지·돌봄' 분야를 소개한다.

시니어 발상
올해에도 사할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부치지 못한 편지
신아연 소설가 잔인한 봄날의 편지



녹두꽃 향기
그림 같은 내장산
동학농민혁명 아픔까지...

1

역사가 숨쉬는 정읍의 봄

99칸 한옥 김명관 고택 원형 그대로
올해 125주년 맞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엔 발원지 서있던 감나무 우뚝
'호남의 금강산' 내장산 푸르름 가득



① 봄 기운을 가득 안고 있는 정읍 내장산의 모습. 내장산은 단풍 명소로 유명하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사진제공 정읍시
② 조선 중기 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김명관 고택에도 봄이 찾아왔다. 이 집은 흔히 아흔아홉 칸 집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이다.
③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찹포장수 울고 간다'라는 애절한 노랫말이 울려 퍼진 곳. 동학농민혁명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한국에서 가을철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는 내장산이 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전북 정읍시를 찾았다.

'반란', '역적'으로 몰렸던 선조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일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손들은 본인이 동학의 후손이라고 밝히기를 꺼렸다고 한다. 2004년 5월 연건평 5361㎡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세워진 배경에도 아픔이 있다. 전두환 시절에 황토재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함께 지어졌던 기념관을 문화유산으로 남겨둔 대신 새롭게 기념관을 세웠기 때문이다. 조병갑의 학정과 수탈에 불만이 팽배해 있던 농민 500여 명이 1894년 1월 10일 봉기했던 말목장터의 감나무는 2003년 태풍에 쓰러져 기념관으로 옮겨졌다.

정읍은 선비문화유적도 곳곳에 간직하고 있었다. 사학기관 '무성서원', 호남제일정 '피향정', 조선 99칸 집 '김명관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정읍이 선비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민초들의 항거'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맞다 = 1894년 1월 10일 정읍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과 농민들은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세상을 향해 죽창을 높이 들고 일어났다. 수탈과 억압에 짓눌리던 농민들은 '사발통문'을 통해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처형과 고부성의 점령, 무기교 탈취,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뜻을 모은다. 정읍 고부면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는 반봉건 항쟁의 시발점이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된 동학농민운동은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서 보국안민을 이루고자 했던 이들의 꿈은 계속됐다. 3·1 독

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에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1층 입구에는 혁명의 최초 발원지였던 말목장터에 있던 감나무가 우뚝 서 있다. 높이 14.5m, 수령 180년 된 이 나무는 2003년 여름 태풍으로 쓰러져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 나무는 고부 봉기 때 말목장터에 모인 1000여 명의 배들평 농민들과 전봉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층 전면에는 '기억의 방'이 있다. 허리를 굽혀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이 방은 사방이 거울로 둘러 있다. 또 작은 전구들이 우리를 수놓고 있다. 이는 몇 명만 들어가도 사람이 꽉 차 보이는 효과를 낸다. 유태길 문화해설사는 "전등 불빛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의 영혼을 상징한다"며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의 수많은 백성이 염원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녹두꽃' 향기 머금은 김명관 고택 = 김명관 고택은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관이 17세 때 짓기 시작한 10년 만인 1784년(정조 8년)에 건립한 우리나라 대표적 아흔아홉 칸 한옥이다. 전통한옥의 조형미를 그대로 간직한 고택은 창하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동남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고택은 행랑채·사랑채·안행랑채·안채·별당으로 구성됐다. 바깥 행랑채의 솥대문을 들어서면 만개한 진분홍빛 박대기나무 꽃이 관광객을 반긴다.

고택의 안마당은 ㄷ자집 형태로, 안채 내부 마당과 안행랑채 사이의 긴 가로마당이 만나는 모양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룬 균형미와 처마의 흐름, 기둥의 배열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되고 아름답다. 대청 좌우에는 큰방과 작은방을 두었으며 이들 방 남측에 각각 부엌을 배치해 큰방에는 시어머니, 작은방에는 며느리가 거거했다.

애초 문화재 지정 명칭은 '정읍 김동수씨 가옥'이 었으나, 2017년 2월 28일 '정읍 김명관 고택'으로 문화재 지정 명칭이 변경됐다. 거의 원형대로 보존돼 있어 중요민속자료 제26호로 지정됐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 드라마 '녹두꽃'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 봄에 더 아름다운 내장산(內藏山), 그곳에 숨겨진 아픔 = 흔히 가을의 내장산을 기억한다. 전국 최고로 꼽히는 단풍 명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의 내장산은 푸른 산록을 그대로 간직한 청정 구역이다. 정읍 9경 중 1경인 내장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내장산은 예부터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렸고,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다.

원래 영은산으로 불렸으나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을 담은 안 내(內), 감출 장(藏), 즉, 내장산으로 불리게 됐다. 내장산에는 계곡을 끼고 있는 수직의 직벽에 용굴이 있다.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굴 안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숨겨졌다. 정읍 태인의 선비 손흥록과 안의는 전주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로 옮겼다.

손흥록과 안의는 내장산으로 가져온 실록을 용굴에 감추고 1년이 넘도록 그곳에 머물며 지냈다. 전주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805권을 손여섯 개 껍데기에 나눠 담고 말에 실어 60km나 떨어진 내장산으로 옮겨왔던 이들의 진심은 눈물겨운 지킴에서 묻어난다. 이후 실록은 선조가 피신해 있는 해주까지 이송됐다가 영변의 묘향산으로, 다시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때도 손흥록과 안의가 함께했다.

봄 기운이 내려앉은 내장산국립공원을 내려와 한참을 걷다보면 우화정(羽化亭)을 만난다. 연못가에는 당단풍, 수양버들, 두릅나무, 산벚, 개나리, 산수유, 복자기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연못을 수놓은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일어두는 여행 tip

전북 정읍시가 4~5일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서 '정읍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 정읍시가 주최하고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다.

드론경진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4일 드론축구 초등

부, 드론레이싱 현장접수 경기가 진행된다. 5일에는 드론축구 중고등부, 드론레이싱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3팀에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저렴하게 드론을 구입해 조립과 비행기술 교육을 받은 뒤 경진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내장산에 ‘드론’ 띄우러 가요”

4~5일 '정읍 드론 페스티벌' ... 에어쇼·축하공연도

드론경진 대회뿐 아니라 드론비행 운전, 드론 관련 전시와 드론코딩, 모형비행기 만들기, 드론 인형 뽑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4일 오후 7시 개막식에는 장공을 가르는 드론 에어쇼가 펼쳐지고 초청 가수 김태우와 닐로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야



외에서 영화 '원더'를 상영한다. 페이스페인팅, 키즈라이더기, 추억의 오락실 체험, 비눗방울 버블버블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부스와 간식 먹거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sh@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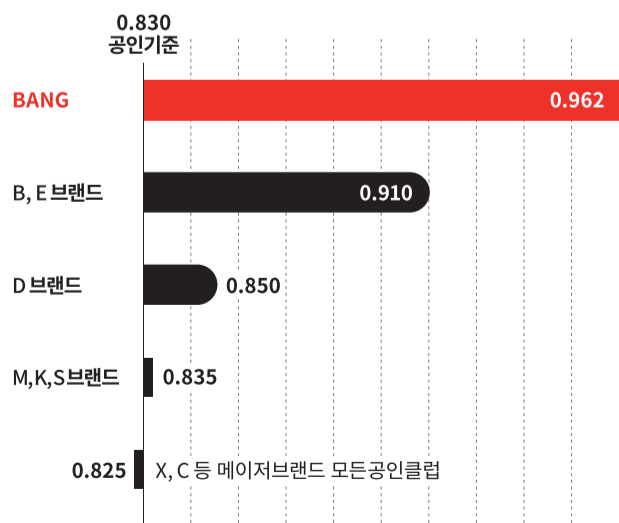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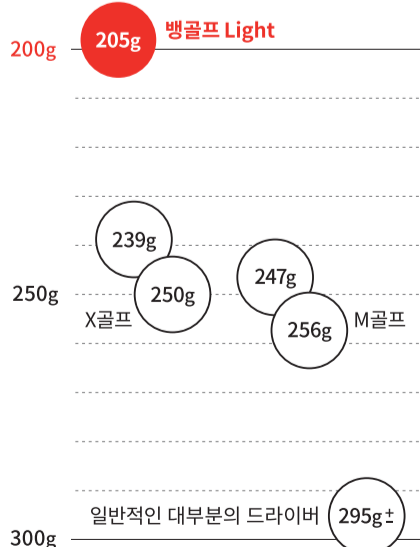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 | BANG Light | 타사 |
|---------------|--|--------------------------------|
| 드라이버 사양 종류 | 999,000가지 | 획일적인 몇가지 |
| 드라이버 무게 종류 | 205g ~ 325g까지 120가지 |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
| 드라이버 강도 종류 | XXX ~ R6까지 36가지 | S, SR, R, L 등 몇가지 |
|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 XXX ~ R6까지 36가지 | S, R 두가지 안팎 |
| 아이언무게(9번 기준) | 남 333g 여 312g |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
| 아이언 샤프트 종류 |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
| 헤드 무게 조정 |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
| 드라이버 100yd 골퍼 |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이 248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 규제와 조세 부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2017년 4분기에 -0.2%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제가 1~2년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이어 기록한 것은 구조적으로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산업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으로 일단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발전체제는 만들지 못했다. 이후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이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에 밀려 국제경쟁력을 잃었다.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최후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렸다. 성장동력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동반 감소다. 수출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다.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4

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한편 투자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다. 기업환경이 악화해 투자위축이 심각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나 감소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다. 수출산업이 무너지고 동시에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현 추세로 나갈 경우 우리 경제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투자은행인 노무라 금융투자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1.8%로 낮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역주행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4대강 정비 등 토목사업에 치중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결과는 경제가 거품으로 떠들썩 국제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기반이 부실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자 경기침체

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난관에 처했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하고 빈부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는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37%나 감소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저소득층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재정 팽창정책을 펴고 있다. 해마다 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정부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1%, 올해 9.5% 등 증가폭이 늘어났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47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늘어 경제와 정부가 함께 부실화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48조

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건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거 정부가 실패한 거품 경제 정책을 다시 꺼내고 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이 248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자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 규제와 조세 부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금액은 5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한국 경제를 앞뒤에서 압박하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올해 총 780조 원의 자금을 기업의 세금 감과 산업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난 일본은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5G 통신, 수소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제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위한 정부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

전 정 일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
신구대 식물원 원장

제목에 보면 아버지들께서 서운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님들도 어머니가 계셨을 테니 서운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시작합니다.

올봄 식물원은 그 어느 해 봄보다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지난해 봄에는 불규칙하고 건조한 날씨 탓에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려웠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식물원을 찾으려던 관광객도 지레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식물원의 봄은 꽃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식물원에 가득한 모습이 꽃보다 더 예쁘기도 합니다. 지난해 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 발길이 줄어들어 이 예쁜 모습을 보는 기회도 줄었습니다. 사실 식물원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면, 일기예보에서 보여주는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좋은'을 보여주기 때문에 식물원으로 더 많이 대피하는 것이 좋은데도 일기예보에서 아

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올봄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줄어들어 아이들 발걸음도 많아지고 예쁜 '아이들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꽃을 보고 시각적으로 '예쁘다' 또는 후각적으로 '향기롭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꽃이 가진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금 숙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초등학교(필자는 국민학교)에서 꽃의 구조를 배웠을 것입니다.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물을 좀 깊이 공부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구조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식물학적으로 '꽃'은 모든 식물에 피지는 않습니다. 꽃의 핵심은 암술과 수술, 그 중에서도 특히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으로 구성된 암술에 있습니다. 그 '씨방' 속에는 장차 수정되어 씨로 자라날 '밀씨'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씨가 씨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식물들을 식물학적으로 속씨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은 속씨식물들에서만 피는

꽃은 어머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우리 어머니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먹기 싫은 음식도 뱃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드셨습니다. 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도 애써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식물, 즉 속씨식물도 똑같습니다. 수정된 밀씨가 훌륭한 씨앗으로 자랄 때까지 씨방 속에 잘 품고 많은 영양분을 그 밀씨에게 주면서 튼튼한 씨앗으로 키워냅니다.

어머니들은 우리가 태어난 뒤에도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려 키우셨습니다. 속씨식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젖을 주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태어난 어린 식물, 즉 새싹에 젖을 물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그 젖을 미리 어린 식물에 주어서 내보냅니다. 씨앗이 싹터서 식물로 자라기 때문에 씨앗도 어린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배와 배젖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가 실제로 어린 식물로 자라게 되고 '배젖'은 바로 어린 식물인 배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 먹고살 어머니의 '젖'인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배젖 대신에 떡잎에 양분을 저장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 것과 같이 어미 식물도 어린 식물에게 젖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들께 섭섭함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잉태할 때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아버님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 그렇지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젖을 먹이는 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혼자서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식물도 같습니다. 수술에서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져 밀씨가 수정이 되고 나면 수술의 역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암술, 즉 어머니의 몫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달이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심오한 꽃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날들이 많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꽃 한 송이 선물해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그 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든지 말입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키아벨리 명언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겸비해야 한다."
통일 이탈리아를 위해 평생을 건 사사가. 14년간의 관직 생활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한 번의 폭력으로 더 많은 폭력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 군주는 폭력을 택해야 한다"는 '군주론'을 집필했다. 냉혹한 정치가라 비난받았지만, 치밀하게 현실적인 논리를 펼쳤던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오늘은 그의 생일. 1469-1527.

☆ 고사성어 / 백미(白眉)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백미는 '흰 눈썹'이란 뜻. 마량(馬良)은 형제가 다섯이었다. 사람들이 형제들을 오상이라 불렀다. '마씨 오상은 모두 뛰어난 자지만 그중에서도 흰 눈썹이 가장 훌륭하다[馬氏五常 白眉最長]'라고 말했다. 마량은 어려서부터 눈썹에 흰 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원전은 삼국지.

☆ 시사상식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화폐 단위를 100대 1, 또는 1000대 1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계산상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신조어 / 줍줍줍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까다로운 청약 규제 때문에 부적격 당첨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미계약분만 노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줍줍 담는 사람'이란 의미로 쓰인다.

☆ 유머 / 며느리와 시어머니
인질범이 돈 많아 보이는 할머니를 유괴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내라 했다. 며느리가 맘대로 하라고 하자 당황한 범인이 집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했다. 당황한 며느리의 다급한 간청. "성질도 급하시긴. 계좌번호 불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펀드는 재미없잖아."
'투자하세요?' 라는 주변인의 질문에 '펀드'라고 답하자 돌아온 말이었다. 내심 특정 종목을 짚어주기 바라고 던졌던 질문에 종목 대신 펀드에 투자한다고 답했더니 곧바로 '수익률 탓'으로 이어진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펀드 수익률도 비슷한 속도로 나빠지는데, 수익률이 플러스로 회복되는 것은 하락하는 속도보다 더디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최근 자산운용 시장이 점점 사모펀드 위주로 기울어진 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전체 펀드 설정 금액이 2014년 말(377조 원) 대비 174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92%의 증가분(160조 원)

기자수첩



김 나 은 자본시장1부/better68@

쪼그라드는 공모펀드와 국민자산 증대

이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갔다. 공모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6.9%에 그쳤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가 모은 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운용도 투자자 모집도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시작부터 다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펀드 수익률이 출렁거리는 사이 공모펀드의 성장도 멈췄다.
최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이유로 사모펀드 규제개편안이 나왔

고,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정책펀드가 출시되는 등 정책적 지원과 개선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정작 '국민 자산 증대'라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유도하는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펀드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적은 돈으로도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 펀드다. 그 투자가 개인의 자산 증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공모펀드다. 정부가 공모펀드의 균형 있는 성장을 팔을 걷어붙여 유도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슈&인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

“추나 비롯한 한방 실손보험 시대 올 것”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난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자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67)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간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침·뜸·부항 등 일부 한방물리요법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최대 20만 원에 달했던 추나시술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방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45.7%가 ‘보험급여 적용 확대’라고 답했다. 이에 정부도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올해 4월부터 근골격계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이 50%가량 줄어든 약 1만~3만 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0여 년간 한의학의 고대 수기요법을 추나요법 이론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신 이사장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덕분이다.

한의사였던 아버지의 왕진을 따라다니며 어렸을 때부터 수기요법을 접한 그는 1982년 경희대 한의대 재학 시절 수기요법에 관심 있는 동기들과 자생의학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며 이론정립에 힘썼다. 이후 수기의학에 관심 있는 회원 50여 명을 모아 고문헌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추나요법을 연구했으며 대한추나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수기요법에서 장점을 딴 지금의 추나요법을 탄생시켰다.

그는 “서양인 체형에 맞는 카이로프랙틱은 해부학, 오스테오펙티(정골요법)은 신경학·근육학, 중국의 튜나요법은 경혈학, 일본의 접골요법은 뼈교정에 집중한다”며 “이러한 여러 수기요법의 장점을 접목해 한국인 체형에 맞는 수기요법으로 발전시킨 것이 추나요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십 년 연구를 통해 마련된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는 한의사가 환자의 체형에 맞게 제자리를 벗어난 척추와 관절, 인대, 근육을 밀고 당겨 바로잡아 각 부위의 본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학술적 이론은 ‘한국추나학’ 교재에, 추나요법의 모든 술기(術技)는 ‘추나요법 임상표준진료지침’에 담기게 됐다.

특히 표준화된 추나요법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기요법으로 자리 잡았다.

신 이사장은 “추나요법은 해외 많은 의사들에게 부드럽고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이 매우 적어 인정성 있는 수기치료로 통한다”며 “2002년 미국 UC어바인 의과대학에서 한국추나학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했으며 2008년 WHO(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전통의학총회에서 한국대표 연자로 초청받아 강의하는 등 미국,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의 추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미국 오스테오펙티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의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 미국 오스테오펙티 의사협회



서울 논현동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난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추나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다음 목표는 추나요법의 질환 확대와 실손보험 혜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의대생 시절 수기요법 관심
“몸의 각 부위 본래 기능 회복”
자생의학회 조직해 이론 정립

추나요법 표준화 해외서 인정
UC어바인 의대 교과목 채택
서구 의학회 비수술 치료 주목
한·양방 함께 통합의학 길 가아

건보 적용 본인부담 크게 줄어
통계·표준화 문제 보완하면
실손보험 혜택도 머지않아

(AOA)의 보수교육 과목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 ‘2019 세계수기근골격의학연합회(FIMM) 서울 컨퍼런스’에서도 그는 국내외 수기요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나요법 등 한방 비수술 치료법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기근골격의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들은 임상실습 위주의 최신 의료 트렌드를 익히고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수기요법과 병행할 수 있는 치료법을 모색하고자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 한방치료법 강의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19’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올 2월 제17대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직에 연임돼 2022년 2월까지 3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신 이사장의 다음 목표는 추나요법의 질환 확대와

실손보험 혜택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직접 개발한 순환기·두개전골·내장계 추나요법을 최근 교육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다양한 질환에 맞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나”며 백세시대 국민 건강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그는 한방실손보험 시대도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나 금감원 등에서 통계나 표준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한방실손보험 상품에 비협조적이었다”며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사안들만 조정하면 한방에서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지금이 국내외 한의학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기로, 한의계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장은 “한의학은 오랜 경험과 검증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산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질환 양상에 의학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받아들이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한의계가 힘을 합쳐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한방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통합의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한방이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가며 자연스럽게 ‘통합의학’의 길로 들어섰다”며 “한쪽만을 배척하는 국내 의료계의 모순된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우선주의’의 관점에서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다면 국내 의학계도 통합의학의 길로 보다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노동계가 5월 춘투(春鬪)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주노총 핵심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파업’이다.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또 산하 노조에 배포한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의 임금인상을 관철키로 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라는, 10년

여 만에 가장 저조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60~70%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 고용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마당인데도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가득찬 최대 한 켠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작년 7월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처음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실질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과 강성 노조의 잇따른 파업은 불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와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노동계의 의식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이 더 줄 수 있다. 지금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나 총파업 위험은 자신들의 밥그릇마저 건어차는 행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노조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노조의 공공기관 무단 점거, 폭력 등 불법행위까지 수수방관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온 정부가 악순환을 키운 책임이 가장 크다.

한 킷



동물국회 뒤 식물국회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은 168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추가경정예산 심사,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는 뒷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국회’가 막을 내리니 ‘식물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옷감손상 걱정 없는
그랑데만의
360개 맑은 봄바람**

360° 분포된 360개 에어홀의 풍부하고 고른 바람이
옷감손상 걱정 없이 건조해주니까, 자연의 건조처럼

자연의 좋은 건조
삼 성 건 조 기 그 랑 데



“ 그랑데의 양방향 도어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

* 옷감손상 없는 건조기를 고를 때는
에어홀의 개수와 고른 분포를 꼭 확인하세요